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9호 HYUNBULNEWS.COM 2026년 10월 28일(음력 9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한중일 불교계 "자타불이로 세계평화"

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10월 20~22일, 경주 불국사 일원
"자비 · 지혜 함양" 공동선언문
내년 대회는 10월 일본 영평사서

경주=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중일 불교계가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이루고, 불교 수행을 사회적 자비행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 불국사 일원에서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20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21일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 국제학술강연회, 공동선언문 발표,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한중일 불교도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부원장 월도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 등 종단협 소속 28개 종단 스님과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 135명으로 구성됐다.

중국에서는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을 단장으로 91명이, 일본에서는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을 단장으로 43명이 참석했다.

삼국 불교계는 21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자신과 타인, 나아가 사회와 세계를 이롭게 하는 화합과 상생의 길을 향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중일 불교계의 황금 유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문화·가치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삼국 불교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와 국가 완성에 앞장설 것 △생명존중과 생태가치를 소중히 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최선을 다할 것 △불교 수행 가치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마음 평화와 인류 공동의 행복에 기여할 것 △삼국 불교계의 우의와 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종교 간 대화로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했다.

앞서 이날 열린 학술강연회에서도 삼국 불교계는 수행이 개인의 마음을 닦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과 사회, 자연을 이롭게 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주목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확장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석 부회장)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불교의 사회적 기여와 연결해 수행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깨달음을 중생을 위한 실천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중국 측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자오청 스님은 '수행의 빛으로 인간 세상을 비추다'를 주제로 불교 수행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로 화합을 꼽았다. 특히 대승불교의 '나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오직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정신을 화합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제시했다.

일본 측 천태종 대승사 주지 코미나미 쿄카쿠 스님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일상에서 정진하며 진정한 보살을 지향하고, 이타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청정한 불국토를 건설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내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영평사 일대에서 열린다. 세부 일정은 내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예비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지구촌 곳곳에 평화 깃들길" 한중일 불교계가 경주 불국사에 모여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발원하고, 갈등과 기후위기 등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을 다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는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이틀 차인 10월 21일 불국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삼국 불교계가 각국의 전통 의식에 따라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며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고 세계 곳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경주=김내영 기자

"열암곡 마애불, 국민 마음 평안 성지로"

조계종 38대 집행부, 마애불 참배
진우 스님 "바로 모시기에 총력"
환경 조성 관계 기관·불자 치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38대 집행부가 10월 2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참배했다.

조계종 제38대 집행부가 10월 2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참배하며 국민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고 새로운 임기의 출발을 부처님 전에 고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원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동시에, 열암곡 일대를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지로 가꾸겠다는 원력을 천명했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700년 불교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 K-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깊은 저변"이라며 "37대 총무원장 취임 당시 첫 공약이었던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를 여러 난제로 온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38대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간절한 결심을 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열암곡 성역화가 곧 국민의 평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에 올랐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산적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 국민의 스트레스와 불행 지수는 매우 높다"며 "이는 다른 나라보다 강한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년 동안 누워 계신 부처님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하겠는가"라며 "어느 나라가 성인을 이대로 방치하겠느냐. 이는 불자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진우 스님은 "만약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곳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평안으로 이어지는 성지로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에 참석 대중도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했다.

집행부는 원진영 주임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오랫동안 엎드려 계셨던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심으로써 나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로 기원하며 생명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참배는 제38대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첫 행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문화유산 복원을 넘어, 천년 유산을 매개로 현대인의 고통을 치유하고 미래 불교의 새로운 구심점을 세우겠다는 종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37대에서 시작된 입불 원력이 38대 집행부를 통해 '국민 평안을 위한 세계적 성지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확장됐다.

현장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정문 스님, 포교부장 정경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조계종연구소장 광전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 등 주요 부·실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총무국장 구산 스님, 기획국장 상준 스님 등 국장단과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진우 스님은 "현장 진입로를 올라와 보니 대중이 참배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길을 잘 정비해 두었다"며 환경 조성에 힘쓴 국가유산청, 국립공원공단, 경주시 등 관계 기관과 그동안 현장을 찾아 기도해 준 불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주=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단기출가학교

2026년 11월 18일(수) ~ 24일(화) / 6박 7일

대상 및 인원 심신이 건강하고 대중 생활이 가능한 20~60세 남여 각 10명
참가비 35만원
접수 방법 온라인 : 범어사 홈페이지 https://www.beomeo.kr
이메일 : beomeosa@daum.net
방문우편 :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250, 범어사 포교국
문의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

범어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오늘, 출가합니다.'
산문에 들어,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

“수행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실천”

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10월 20일, 환영만찬으로 개막
21일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도
“삼국 불교 황금 유대 굳건히”

경주=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10월 20~22일 경주에서 열린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한중일 삼국 불교계는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함께 정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삼국 불교계 대표단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

한중일 불교계가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국의 우의를 다지고,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는 10월 20일 경주 힐튼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환영만찬을 열고 제26차 교류대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22일까지 이어진 이번 대회에는 삼국 불교도 300여 명이 참석해 ‘불교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평화와 화합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논의했다.

환영만찬은 불교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평화를 향한 공동의 염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우리 삼국 불교계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비행을 확장해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며 “이는 한국 불교계가 ‘선명상’을 통해 소명을 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회 둘째 날에는 석굴암 참배에 이어 불국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은 환영사에서 “1300년 전 신라인들이 불국사와 석굴암에 불국정토를 향한 원력을 담았듯, 오늘 이곳에서 함께 세운 원력 또한 국경을 넘어 평화와 화합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회에서는 삼국 불교계가 각국의 전통 의식에 따라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며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고 세계 곳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한국 측 의식은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 스님이 집전했다. 종단협 회장단은 칠정례와 석가모니불 정근, 반야심경 합송 등을 함께했으며, 종단협 부회장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동북아 평화와 인류 화합, 기후재난의 조속한 복구 등을 축원했다.

진우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지구촌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의 문명사를 열어가고, 기후위기와 고통받는 생명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비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중국과 일본 불교계도 각국의 예불에 이어 평화 메시지를 전하며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강조했다.

중국불교협회 회장 연각 스님은 더 자비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불교의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것이 삼국 불교계가 짊어진 역사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은 정토종 종무원장 모테기 예준 스님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보시의 실천이 개인의 수행을 넘어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져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회 후에는 불국사 범영루 앞 잔디에서 삼국 회장단과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이 기념식수를 하며 우호와 연대의 깊이를 더했다.

삼국 불교계는 22일 문화공연과 만찬을 끝으로 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만찬사를 통해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회향을 축하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 연각 스님, 타케 카쿠쵸 스님은 각국의 전통을 담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우의를 나눴다.

“본말사 재정 부담 단계적 경감”

10월 22일, 교구본사주지회의
27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논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7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이를 공유하고 주요 종책 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본·말사의 재정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10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불기 2570년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불기2571(2027)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4년이 종단의 안정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이제 출범한 제38대 집행부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손을 맞잡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종단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제시했던 ‘공의·공감·공심’의 실현도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모든 대소사는 대중의 뜻을 모으는 공의로 결정되어야 하고, 사부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오직 불교 중흥만을 생각하는 청정한 공심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삼공(三公)의 원칙은 중앙과 교구가 온전히 하나 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매사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며 살아 숨 쉬는 종단 운영을 함께 일궈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일선 교구와 사찰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동결’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불교 활성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전법 종책 연구,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보듬는 자비 나눔 활동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예산을 배분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분담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종단 수익사업을 적극 모색해 본·말사의 재정 부담을 단계적으로 덜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교구를 포함한 26개 교구본사 가운데 마곡사, 화엄사, 선암사, 송광사, 선운사를 제외한 21개 교구가 참석했다.

김내영 기자

본사주지협의회장에 성효 스님 선출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에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이 선출됐다.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교구본사 간 입장 차이로 활동을 중단한 지 약 3개월 만의 활동 재개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10월 22일 별도 모임을 갖고 성효 스님을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성효 스님은 “선거 제도 등 종단 현안을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원래 화합하는 공동체인 만큼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인선

미래본부장 금강 스님 등
“선명상 운동·전법포교 힘써”

조계종 미래본부 본부장에 금강 스님이, 총무원 포교부장에 정경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미래본부 본부장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에 임명된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조계종 미래본부 본부장에 금강 스님, 총무원 포교부장에 정경 스님, 조계종연구소 소장에 광전 스님이, 한국문화연수원 원장에 태효 스님, 총무원 호법국장에 지안 스님, 조사국장에 선화 스님, 상임감찰에 문수 스님이 임명됐다. 또 직할교구 공찰 청룡암 주지에 총무원 재무부장 여학 스님이 임명됐다.

임명장 수여 후 진우 스님은 미래본부 본부장 소임을 맡은 금강 스님에게 명상 보급과 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언급하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금강 스님은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수계(사미계)했다. 고불총림선원, 대흥사 동국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으며 미황사 주지를 지냈다. 현재 고시위원회 고시위원과 승가교육위원회 승가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교부장 정경 스님에게는 전법포교 확대를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전법포교 극대화를 위해 삼원체제에서 총무원으로 일원화된 만큼 포교부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전법이 한층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경 스님은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호국영축사, 보라매법당, 옥천암, 보원사 주지를 지냈으며 현재 간월암 주지를 맡고 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연구소장을 맡은 광전 스님에게는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문화연수원장 태효 스님에게는 연수원의 어려운 운영 여건을 언급하며 “종단과 협력해 연수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서울 봉은사 주지에 석산 스님

10월 20일 임명장 수여



서울 봉은사 주지에 석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봉은사 주지 석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석산 스님의 임명일자는 9월 22일이며, 임기는 2년이다.

진우 스님은 “봉은사는 종단 직영 사찰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 사찰이자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도량”이라며 “스님들의 관심이 높고 불자들에게 기도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주지 소임에 따르는 책임과 중압감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석산 스님의 수행과 전법 모습을 지켜보며 주지 소임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해 임명하게 됐다”면서 “전임 주지 스님이 오랫동안 봉은사를 잘 이끌어 온 만큼 그 이상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대표 사찰로서 조계종의 랜드마크 도량으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석산 스님은 “종단과 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임은호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

“전통·현대·종교 넘는 장 펼쳐졌다”

태고종, 10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2026 영산재 · 태고락 페스티벌
대중과 소통하는 불교문화 모색
이 대통령 “전통의 새로운 가능성”



태고종은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제5회 태고종 영산재 및 태고락 페스티벌’을 봉행했다. 폭우 속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 의례가 시민과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적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풍급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친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궂은 날씨에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직접 경험하려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괘불이 걸린 장엄한 무대에서 불교 의례가 펼쳐진 데 이어 젊은 스님들과 록 밴드의 공연이 광장을 채웠다. 전통 바라춤과 현대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은 불교 의례의 예술적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제5회 태고종 영산재 및 태고락 페스티벌’을 봉행했다. 영산재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불교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전통 의례와 대중음악 공연을 결합한 자리였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시공을 초월해 재현하고, 영산회상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불교 의식이다. 살아 있는 사람과 세상을 떠난 이들이 함께 진리를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범패와 바라춤·나비춤 등 불교음악과 작법무가 어우러진 한국불교 의례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은 법어에서 영산재의 의미를 되새겼다. 법상에 오른 운경 스님은 게송 ‘영산화상 시시현(靈山會上 是示現), 일체중생 동법회(一切衆生 同法會), 한수역류 묵북악(漢水逆流 默北岳), 산산수수 미가소(山山水水 微呵笑)’를 읊었다. ‘영산화상을 이렇게 시현했으니 일체중생들은 다 함께 참여해 법문을 들으라. 한강물은 거꾸로 흐르고 북악산은 말이 없구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우습다’는 의미를 가진 게송을 통해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영산재의 의미를 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에서 영산재를 “한국 전통불교문화의 백미”로 소개하며,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전통과 현대, 종교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경천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영산재를 음악과 춤, 의식과 장엄이 어우러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불교 의례로 평가했다. 이어 영산재의 깊은 울림과 대중음악이 종교와 세대를 넘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전통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이어진 영산재는 신중작법,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 법고, 거불, 축원, 향수나열, 사다라니, 가지게, 축원화청 순서로 이어졌다.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아름다운 승무와 범패가 시민들에게 선보여졌다.

영산재에 이어 열린 ‘태고락 페스티벌’은 전통 의례의 예술적 요소를 현대 대중문화와 연결하는 무대였다. 럼블피쉬와 크랙샷, 노브레인, 체리필터 등이 출연해 록 음악의 열정과 에너지를 선보였다. 특히 태고종과 럼블피쉬의 협연은 전통 불교문화와 대중음악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전통 바라춤의 역동적인 몸짓과 록 음악의 강렬한 사운드를 결합해 기존 불교 의례에서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10월 22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5988만6790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과 신도회도 같은 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1000만원을 전하며 자비행을 펼쳤다.

한마음선원, 네팔 피해 지원에 ‘한마음’

본원 · 울산지원 10월 22일
약 7000만원…십시일반 모아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이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자비행을 펼쳤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10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5988만6790원과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본원 기금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연한 금액이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네팔 대홍수 이후 9월부터 한 달간 신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고, 울산지원에서도 이 뜻에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회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3일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를 개최한 울산지원과 관람객들도 네팔 복구에 힘을 보탰다.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산사문화축제에 출연한 가수 이찬원 씨의 팬들이 약 500만원을, 가수 마이진 팬클럽에서도 100만원의 정성을 모아주셨다”며 “여기에 신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좋은 곳에 회향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학교나 보건소 건립 등 명확한 전달 대상을 지정해 기금이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마음내주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전국 각지에서 펼치고 있는 한마음선원의 포교 활동도 응원했다.

혜수 스님은 “내년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한마음선원에서는 합창제와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을 비롯해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솔 스님,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 이기정 본원 수석부회장과 울산지원의 천주현 신도회장과 구본곤 수석부회장, 노명수 청룡회장이 배석했다.

이현희 기자

해인사, 세계유산 팔만대장경 다시 새긴다

‘장경도감 대장경 판각 고불식’
10월 29일, 법계탑 특설무대서

법보종찰 해인사가 800년 전 팔만대장경 조성에 담긴 호국 정신을 잇고 인류 평화를 발원하는 새로운 대장경 판각 불사를 시작한다.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0월 29일 오후 2시 법계탑 마당 특설무대에서 ‘다시 새기는 대장경, 인류를 향하다’를 주제로 ‘해인사 장경도감 대장경 판각 고불식’을 봉행한다.

이번 고불식은 800여 년 전 고려인들이 몽골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던 숭고한 원력을 오늘날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원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인사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전쟁과 핵 위협,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등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새로운 불안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대장경 판각 불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오후 12시 30분 법보전 앞마당에서 ‘대장경 판각 조성 원만성취 만일기도’ 입재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법계탑 마당에서 대장경 판각 고불식으로 이어진다. 오후 3시부터 법보전에서 전통 대장경 판각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입재하는 만일기도는 대장경 판각 조성의 원만성취와 지구의 안녕,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발원하며 1만일 동안 이어가는 장기 기도 불사다.

해인사는 선조들이 남긴 법보의 정신을 오늘의 수행과 전승으로 이어가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한다는 원력을 담았다.

이번 대장경 판각 조성은 기존 팔만대장경 경판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판에 담긴 정신과 전통 판각기술을 계승하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는 과정에 깃든 수행과 정성, 책임의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판각학교를 중심으로 전통 판각기술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기록과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국민 참여와 국제교류 등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중진 스님들, 네팔 복구에 6000만원

돈명 · 수불 · 정만 스님 등 7명
엄홍길휴먼재단 통해 현지 전달


대구 도림사 회주 선각 스님, 대구 금화사 주지 진성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선본사 주지 혜안 스님이 동참했다. 성금은 네팔 현지에서 학교 설립과 구호 활동을 이어온 엄홍길휴먼재단을 통해 피해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불교계 중진 스님들이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엄홍길휴먼재단에 긴급구호 성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10월 21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네팔 대홍수 피해 긴급구호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성금 6000만원 모연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을 비롯해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

임은호 기자



卍 전국 사찰 종단 가입 모집 卍

청정한 계율·승가의 화합·정법홍포

부처님 정법을 계승하고 청정 승가 전통을 이어갈 스님들을 모십니다.

사)한국티벳불교선원은 제14대 달라이라마 존자로부터 직접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하신 ‘텐진 왕축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모시고 경남 합천에 소재한 총본산 적멸보궁 관음사에서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과 스님들의 화합과 상호 교류, 승가 위상 제고와 한국불교 발전 및 정법 홍포에 나설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전국 사찰 종단 가입 안내
- 사단법인 한국티벳불교선원
- 총무원장 텐진 왕축 스님
- 본사 적멸보궁 관음사
-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무곡길 276
- 전국 사찰 및 종단 소속을 희망하는 주지스님

종단 가입 비용
- 종단 가입 서류비 : 500,000원 (최초 1회)
- 종단 연회비 : 300,000원 (매년)

종단 가입 사찰 발급 사항
① 종단 소속 사찰 가입증서 발급
② 종단 소속 사찰 주지 임명장 발급
③ 종단 소속 승려증 발급 (유효기간 1년)
※ 각종 증서 및 승려증은 종단 내부 규정과 심사 절차에 따라 발급합니다.

종단 가입 신청 및 문의
- 사단법인 한국티벳불교선원 총무원
- 본사 : 적멸보궁 관음사
- 주소 : 경남 합천군 대양면 무곡길 276
- 전화 : (055)933-9914 / 010-2002-9914

한국티벳불교선원 사단법인 한국티벳불교선원

“대행 선사 가르침 따르겠습니다”

10월 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제23회 전국연합청년법회 봉행
회원, 법사 스님 등 500명 참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은 10월 18일 전국 청년회 법사와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전국연합청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 직후 진행된 기념촬영 모습.

전국 한마음선원 청년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가르침을 선양할 것을 다짐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0월 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제23회 전국연합청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안양본원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등 전국 15개 지원에서 청년회 법사 스님과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중부경남지원 청년회원들의 헌다·헌화를 했다. 이어 전국 청년회원들이 내년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전시회의 원만회향을 위해 모은 정성금을 나태희 본원 청년회장이 청년회를 대표해 부처님 전에 올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행 선사가 1993년 10월 31일 제3회 전국연합청년법회에서 청년 불자들에게 당부한 법문이 영상으로 상영됐다.

대행 선사는 “과거에 지은 선업과 악업이 현재에 나타나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어떠한 의식 속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다 그 자리에 내놔라”고 당부했다.

“내려놓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한 대행 선사는 “나쁜 의미가 담긴 것은 그 자리에 놓고, 신선한 물로 쓰듯이 잘 돌려놓으라”고 당부하며 마음은 ‘생산처’인 만큼 선업을 쌓을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회원을 대표해 김시영 통영지원 청년회원은 대행 선사께 올리는 마음의 글을 낭독했다. 김시영 청년회원은 “제가 지금까지 마음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마음공부를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주인공을 지극히 믿으며 살아가면 정말 모든 일이 잘 굴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공부를 통해 주인공을, 내 근본 불성을, 참나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침을 주신 대행 선사께 감사 인사 올린다”면서 “항시 남과 나를 둘로 보지 않고, 주인공과 나를 둘로 보지 않고, 전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 한 마음으로 연결된 모두를 위해 마음을 내면서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993년 당시 법회 영상 속 청년들의 질문이 오늘날 청년들도 공감하는 의문과 고민”이라며 “주인공을 온전히 믿지 못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 역시 공부 과정에서 겪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음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라”고 당부하며 “실천을 거듭하면 내면의 갈증도 채워진다”고 강조했다.

청년회원들이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전시회에 정성금을 올린 것에 대해 혜수 스님은 “우리 청년들이 해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겠는가. 청년 불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전 법회 이후 청년회원들은 4층 법당에서 담선법회를 이어갔다. 연합법회에 앞서 전국 청년회원들은 1주일 동안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정진해 왔다.

월정사 천도재, 살아 있는 이들의 치유까지 발원

‘영가천혼수륙무차대법회’
11월 14일, 경내 특설무대서



금강경봉찬기도회장 자현 스님(왼쪽)과 기도신행국장 승우 스님.

조상과 영가,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정신적 안정을 기원하는 법회가 월정사에서 열린다.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회장 자현 스님)는 11월 14일 오후 1시 경내 적광전 앞 특설무대에서 ‘금강경봉찬기도 영가천혼수륙무차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석은 3000개의 지화로 장엄되며 사부대중 2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는 ‘모든 이가 화락하고 행복하게 세상이 맑아지고 국가가 화평해지게 가족은 위로와 위안을 망자는 극락왕생을’을 기치로 연다. 법회에서는 선망조상·자매·친척·친구를 비롯해 뱃속에서 횡사한 수자령, 반려동물, 자살자·사고사·재난사 등으로 세상을 떠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신질환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살아 있는 이들까지 기도 대상에 포함해 정신적 안정과 치유를 기원한다.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장 자현 스님은 10월 19일 서울 불교문화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도 접수자가 전국에 1만2000가구가 넘는 가운데, 천도 대상 영가의 가족이나 본인 중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과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이들까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은 “특히 가족의 죽음과 코로나19 팬데믹, 사고 후유증, 고령화에 따른 여생의 고독감과 불안감 등 정신 질병이 조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본인의 생을 단절할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스트레스, 트라우마, 심리적 부담을 안은 이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기원하고자 했다”고 기도 대상 확대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회에서는 법고, 범종오타, 시현, 재대령, 관욕 등의 불보살 및 영가를 기리는 사부대중 스님들의 의식을 시작으로 상단예불, 혜안 스님의 축원, 회주 정념 스님의 법문, 회심곡, 관음시식, 호마의식 등이 진행된다. 끝으로 계첩과 영가의 이름을 적은 호마목, 향·지화·쌀 등의 공양물들을 태우는 소대의식과 함께 법성게를 독송하며 법회를 회향한다.

상단예불에서는 올해부터 월정사 주지 인광 스님 외 법회 동참 스님들이 천도재에 동참하는 복위자들에게 영가를 대신해 불연을 맺게 해주는 연비 의식도 봉행한다. 기도신행국장 승우 스님은 “생에 불연을 맺지 못한 모든 영가들이 청정한 개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033-339-6791 박지운 기자



화성 신흥사, 동국대 한방병원에 2000만원

화성 신흥사 회주 성일 스님과 주지 선관 스님이 10월 15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병원장 김동일) 발전을 염원하며 2000만원을 기부했다. 두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자비의료를 실천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하는 의료포교도량으로 성장하기를 발원했다. 또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의료 현장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병원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통일 글짓기 공모전 수상 축하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는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이사장 화정 스님)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24편이 출품됐다.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54편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대상에는 송다영의 ‘그냥은 안 돼요?’와 조희원의 ‘고추잠자리의 약속’이 선정됐다. 이현희 기자

캄보디아 아동센터 20주년…후원 잇따라

법장사, 취약계층에 1000만원
통해사·나누며하나되기 생필품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캄보디아 아동센터 설립 20주년을 앞둔 가운데 사찰과 NGO 단체 등 각계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아동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이어온 20년의 발걸음을 축하하며 현지 주민과 아동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서울 법장사(주지 퇴휴 스님)는 10월 15일 ‘캄보디아 취약계층 교육 지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서울 통해사(주지 만소 스님)는 9월 11일 수건, 칫솔, 치약, 비누 등 세면도구 300세트를 지원하며 아동과 주민들의 위생과 생활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단체들의 물품 후원도 이어졌다.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진철 스님)는 10월 16일 파스, 라텍스장갑 등 생필품 약 31박스를 후원했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이 10월 15일 아동도서와 아동복, 여성의류 등 1000여 개를, 순천비전라이온스클럽도 9월 29일과 10월 14일 2차에 걸쳐 아동복을 비롯한 의류 1500여 개를 보태며 나눔에 동참했다.

물품은 로터스월드가 신축을 지원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로터스월드 결연 아동에 우선 전달된다.

로터스월드 아동센터 설립 20주년 기념식은 11월 28일 캄보디아 시엠립 현지에서 개최된다. 이날 아동센터 법당 마하사와 아동센터 운동장 중앙에 모신 부처님 개금불사 회향식도 진행된다. 동참한 이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석재 명판에 새겨 부처님 좌대 하단에 봉안할 예정이다. 개금불사 동참 후원은 11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 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024-071023-01-024 로터스월드

이현희 기자

기자칼럼

사찰 결혼식, 청년 포교의 새 길

지난 9월 21일, 영광 불갑사에서 세 커플이 가족과 관광객들의 축복 속에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다. 불갑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러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나 특별한 예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한 ‘동행 웨딩’이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의 부부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사찰이 예비부부들에게도 결혼식 장소로 문을 연다면 어떨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와 성당이 종교적 의미를 넘어 결혼식 장소로도 활용되듯, 사찰 역시 예비부부들이 자연스럽게 고려하는 예식 공간이 될 수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산사의 풍경부터 도심 속 전통 건축이 선사하는 고즈넉한 분위기까지, 사찰은 예식장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고유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형식보다 의미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사찰에서 시작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나는 절로, 쌍계사’편에서 만난 커플이 올해 결혼식을 앞두고 10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를 통해 결혼에 이른 커플은 5쌍, 결혼을 앞둔 커플은 7쌍에 이른다. 사찰에서의 만남이 삶의 동반자를 만나는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다. 사찰에서 인연을 맺는 데 그치지 않고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불교가 청년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찰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예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사찰을 새롭게 경험하며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한 번의 결혼식이 색다른 방문과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다.

청년 포교는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청년들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건네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때 불교의 자비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 결혼식이 하나의 예식 문화로 자리 잡도록 세심한 기획과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도와 수행 공간을 넘어 삶에 의미 있는 공간으로 사찰이 청년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 인연이 다시 불교를 찾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지운 편집국 기자

‘나는 절로’ 결혼 커플…“스님 응원 덕분”

10월 19일, 진우 스님 예방
불교사회복지발전기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에서 인연을 맺은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동희·이은주 씨는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10월 24일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나는 절로, 쌍계사’ 편에서 처음 만났다. 진우 스님은 당시 프로그램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그 인연을 잊지 않은 두 사람은 진우 스님을 다시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한동희 씨에게 ‘선우(善友)’, 이은주 씨에게 ‘혜연(慧連)’이라는 법명을 내렸다. 스님은 “선이 세상에 퍼져 괴로움이 사라진 극락정토에서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며 ‘혜연’에 대해서는 “지혜를 잘 갖춰 두 사람의 인연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불교사회복지발전기금’ 100만원도 전달하며 인연에 대한 감사함을 사회 나눔으로 회향했다.

이현희 기자

프랑스 입양인들, 템플스테이 경험

불교문화사업단, 10월 6~12일
한·불 수교 140주년 팸투어



한국계 프랑스 입양인들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경험하고 고국과의 인연을 되새겼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10월 6~12일 한국계 프랑스 입양인 11명을 초청해 ‘2026 한국계 프랑스 입양인 초청 템플스테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문화사업단이 기획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고국과의 유대감을 넓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참가자들은 10월 6일 서울 조계사 탐방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7일에는 서울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하경 스님과 함께 전통 오란다 만들기와 명상을 체험했다.

이어 8~9일에는 부산 범어사에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사진〉 숲길 걷기와 저녁예불, 선명상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를 경험했으며 범어사 사찰음식체험관에서는 도림 스님과 함께 사찰식 김치를 만들며 사찰음식에 담긴 전통과 가치를 배웠다.

임은호 기자

조계사, 감사와 천도의 '국화수륙대재'

10월 19일 중양절 맞아 봉행
고혼 천도 · 중생 평안 발원



서울 조계사가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유주무주 고혼 천도와 중생 평안을 발원했다.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0월 19일 '불기 2570년 감사와 천도를 위한 중양절 국화수륙대재'를 봉행했다. 불교 전통 의례인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 떠도는 외로운 넋을 천도해 이고득락과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이다.

이날 수륙대재는 일주문에서 고혼을 모시는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특설무대로 영가를 이운해 영가의 번뇌와 업을 씻는 관욕, 불법의 길을 일깨우는 대령,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의지해 영가의 명복을 비는 관음시식, 위패를 태워보내는 봉송·소전 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국화수륙대재 감사 헌공 발원문을 통해 시방세계 모든 생명이 부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원했다. 일체 영가를 향해서도 "사바세계 고통받는 모든 중생 다 함께 가피력에 의지해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자재 해탈을 얻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밝혔다.

주지 담화 스님은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과일과 곡식을 올려 조상님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발원한다"며 "오늘 수륙대재를 성대하고 활기차게, 여법하게 봉행한 만큼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털어내 남은 올해도 잘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은 "오늘 조계사 국화수륙대재를 통해 조상님들이 극락왕생하시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나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도록 보살펴 주시길 기도했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 생전예수재 회향…"불도 이루길"

10월 18~19일, 회향식 거행
학술 연구 · 전승 교육 등 매진



서울 봉은사가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 공덕을 닦고 참회와 성찰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의 안녕과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교 의례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회향하며 일체 중생 모두가 삼독심에서 벗어나 불도를 이루길 간절히 기원했다.

봉은사는 10월 18일과 1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식'을 거행했다. 생전예수재의 의례와 작법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하고, 봉은사 생전예수재 어장 법안 스님(조계종 어산종장)과 생전예수재 보존회 어산단 스님들이 주도했다.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보존회 이사장 원명 스님은 "의례의 원형 보존을 넘어 학술 연구와 기록화, 전승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학술교류와 문화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그 가치를 알리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부대중은 "인류 모두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불국정토를 만들어가는 보살행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사후를 위한 재를 미리 닦으며 지난 삶을 참회하고 선근공덕을 쌓는 불교 전통의례다. 봉은사는 1993년부터 신행운동으로 생전예수재를 이어왔으며, 2016년 원명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윤달에 한해 간소히 설행되던 예수재를 전통의례 그대로 복원했다. 2017년에는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를 설립해 체계적인 연구와 전통 원형 복원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서울시 무형유산으로, 2025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김내영 기자

용주사 국행 무차회 "일체 중생에 자비를"

10월 18일, '천년의 아우름' 주제
황실재례 재현…라오스 불상 봉안



정조대왕의 효심을 잇는 효찰대본산 화성 용주사에서 모든 중생의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고 자비와 공덕을 전하는 법석이 펼쳐졌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는 10월 18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천년의 아우름, 국행 무차회(無遮會)'를 봉행했다.

무차회는 고혼을 모셔오는 시련의식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이준 황손이 왕의 교지를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에게 전달하고 영단에 공양물을 올리는 황실재례가 진행됐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법문에서 "오늘 무차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성효 스님은 "멀리 보고 무한히 베풀자. 그밖에 좋은 일 없으니 알아라. 이것 무차가 전부이니, 그 끝에 내 모습을 보자"는 경구로 '무차'의 의미를 전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에 담긴 전통의 가치를 알리고 전승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용주사는 라오스 옹뜨사원 주지 푸마봉 푸앙빠서엇 스님(라오스불교연합회 부회장) 등 라오스 방문단과 불상 봉안 의식을 봉행했다. 이어 국행 무차회 개최를 위해 힘쓴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도 전달했다.

'용주사 국행 무차회'는 용주사가 고려 광종 22년(971년)부터 이어진 갈양사(현 용주사)의 수륙도량 전통을 계승하고 조선 정조가 용주사에서 무차회를 주최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봉행하는 불교의례다. 이현희 기자

수덕사, 음악으로 마음 보듬다

10월 19일, 제4회 산사음악회
수덕사 · 효원문화재단 공동 주최



천년고찰 수덕사에 울려 퍼진 음악이 불자와 지역민의 마음을 이었다. 국악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무대에 관객들은 일상의 시름을 내려놓고 자비와 희망의 울림을 나눴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재단법인 효원문화재단은 10월 19일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예산군민과 충남도민이 함께하는 '제4회 수덕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는 "모든 것이 감동입니다. 가슴이 후끈해집니다"라는 격려의 말로 음악회의 문을 열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천년 도량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이 바쁜 일상 속 번뇌와 시름을 털어내고 지친 마음에 평온과 치유를 선사하는 맑은 감로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무대는 제7교구 연합합창단이 장식했다. 수덕사 우담바라합창단과 서산 서광사 룸비니합창단, 당진 보덕사 관음합창단, 당진 서원사 연화합창단이 함께한 제7교구 연합합창단은 홍은지 지휘자와 박은영 반주자의 협연에 맞춰 '무상'과 '잊혀진 계절'을 선보였다.

이어 유도현과 강리연, 신나, 강민주, 박애리, 임창정, 홍지윤, 박지현, 에일리 등 다양한 장르의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공연을 펼쳤다. 특히 예산 출신 국악 트로트 가수 유도현의 출연은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무대로 의미를 더했다.

쌀쌀한 가을 날씨 속에 열린 이날 음악회는 음성공양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수행의 도량과 지역사회를 잇는 문화의 장이 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은해사, 호국정신 잇는 은빛문화제

10월 17일 의승 · 의병 추모재
전시 · 음악회 등 지역민 화합



개산 1217주년을 맞은 은해사가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개산의 원력을 되새겼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성로 스님)는 10월 17~18일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여섯 번째 이야기'를 개최했다.

첫날인 17일에는 임진왜란 당시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희생된 의승·의병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추모재가 봉행됐다.

주지 성로 스님은 봉행사에서 "선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호국과 자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오랜 세월 이 땅을 지켜온 전통사찰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모재에 앞서 육화원에서는 '은해사 임진왜란 최초의 의승군 승리 특별전시'도 개막했다. 당시 사용한 무기와 승전 이후 조선 왕실에서 하사한 물품 등에 관한 자료도 선보였다.

저녁에는 영천성 수복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록 콘서트 '극락도 락'이 열렸다. 육중완밴드와 김기태밴드, 손진욱밴드가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개산 1217주년 법요식이 봉행됐다. 성로 스님은 봉행사에서 "신라 해철 국사의 개산 원력을 되새기고 법맥과 수행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은빛음악회가 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행사장에서는 차 명상 쉼터와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역 농특산물 판매 장터 등도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고운사, 산불 아픔 딛고 문화제 재개

제4회 고운문화제 · 사찰음식축제
나무 100그루 심고 맨발걷기 대회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천년고찰 고운사가 2년 만에 문화제를 재개하고 자연과 문화유산의 회복,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기원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는 10월 17~18일 '제4회 고운문화제 및 고운사찰음식축제'를 개최했다.

첫날인 17일에는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개막식이 열렸다. 이어 퀴즈쇼와 비보이 공연, 김현탁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 연구교수 초청 토크콘서트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고운음악회에서는 경북도립국악단의 연주와 가수 최예림·박서진·정수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고운사찰음식축제에서는 고운사 소속 20개 말사가 정성껏 마련한 사찰음식 4500명분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부석사와 청량사, 고운사, 봉정사, 초암사, 영주포교당, 관음사, 대곡사 등 각 사찰은 전통과 특색을 담은 음식을 선보이며 사찰음식에 깃든 공양과 나눔의 정신을 전했다.

스님과의 차담과 명상, 환경체험, 지역 상생 플리마켓과 버스킹 등도 운영돼 사찰문화와 지역사회를 잇는 장이 됐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산불 피해 숲의 회복을 기원하는 나무 심기 행사가 진행됐다. 수사해당화 등 나무 100그루를 심으며 자연 회복의 염원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고운천년숲길 맨발걷기 대회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힐링콘서트, 불교합창단과 오카리나 공연 등이 펼쳐졌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쌍계사, 생명 살리고 자비 나누다

10월 18일, 자비방생대법회
남해군에 기부금 1000만원



쌍계총림 쌍계사가 고산 대선사의 방생 정신을 계승하며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원력을 다졌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와 본·말사연합회(회장 이암 스님)는 10월 18일 쌍계사에서 '제41회 본·말사 연합 자비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쌍계사 회주 영담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방생은 단순히 살생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자비행"임을 강조하며,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다.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개회사에서 고산 대선사의 원력으로 이어온 방생법회의 전통을 계승해 생명 존중과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궂은 날씨에도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쌍계총림의 수행 가풍 계승과 교구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부대중은 고산 대선사의 생전 영상 법문을 통해 불살생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지현 스님과 이암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은 꿩을 지리산 자락으로 날려 보내며 일체 중생의 안녕과 평화를 발원했다. 신도들은 영상으로 방생 장면을 지켜보며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동참했다.

이날 쌍계사 본·말사연합회는 사부대중의 정성을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남해군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산사 개산대재…"붓다로 살아가자"

10월 17일, 제1427주년 개산대재
역대조사 다례재와 개산대법회



천년 미륵신앙의 숨결이 깃든 모악산 금산사 도량에 평화와 상생의 서원이 이어졌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10월 17일 대적광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427주년 모악산 금산사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법회는 비구니 스님들의 육법공양에 이어 전북무형문화유산 영산작법 보존회 영산 스님, 법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의적화상, 숭제 법사, 진표 율사, 처영 대사, 혜덕 왕사 등 역대 조사 스님들의 다례재를 시작으로 행사가 열렸다.

주지 화평 스님은 환영사에서 "개산이란 단지 산문을 열고 절을 세운 과거의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며 "혼란과 고통의 시대마다 중생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희망의 길을 터놓았던 보현행원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회주 도법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라며 "지금 당장 평화롭고 따뜻한 붓다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불자의 길"이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제3회 모악산 금빛가요제'가 열렸다. 개그맨 박범수의 사회로 김성훈 등 참가자들의 경연이 펼쳐졌다. 이어 송세운 명창, 트롯가수 김유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원곡 가수 김용진, 주병선, 김양 등이 흥겨운 축제의 장을 열었다.

저녁 공양 후에는 금산사 도량을 연등으로 장엄하는 만등법회가 봉행됐다. 불자들은 가족의 건강과 온 세상의 평화를 발원하며 등불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선사서 반려견과 선명상해요"

10월 19일, 2026 선명상 축제
도그요가 · 수의사 강연도 진행



"반려견이 편안하도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10월 17일 '2026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를 개최했다. 남양주시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봉선사와 경기도, 남양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올해는 조계종이 추진하는 국민행복 치유 프로젝트인 선명상을 반려문화와 연결해 의미를 더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호흡하고 걷는 과정을 통해 생명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오전에는 주지 호산 스님의 지도로 수행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스님은 앉아서 수행하는 좌선과 걸으며 수행하는 행선의 뜻을 설명하고 좌선 체험을 이끌었다. 이어 반려견과 함께 경내를 걷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호산 스님은 개회사에서 "반려인을 위한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견을 위한 반려인이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의 인연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윤정원 한국애견요가협회장의 '최상의 행복을 찾는 도그요가 테라피'와 최인영 수의사의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반려생활 건강 이야기'가 이어졌다. 또 힐링펫타로와 반려견 바디 데코, 반려견을 위한 염주 목걸이 만들기 체험도 상설 운영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통도사, 1381주년 개산대재

10월 19일, 법요식 봉행
영고재 · 영축삼보 이운으로
자장 율사 창건 정신 기려
한 달간 '영축문화축제' 성료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는 창건 1381주년을 맞아 10월 19일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창건 1381주년을 맞아 개산조 자장 율사의 창건 정신과 역대 조사들의 수행 전통을 기리는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19일 괘불대 앞에서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요식에 앞서 개산조당에서는 영고재가 봉행됐다. 영고재는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역대 조사들의 수행과 공덕을 기리는 의식이다.

영축삼보 이운 행렬은 총림문에서 괘불대까지 이어졌다. 사부대중은 이운 행렬과 함께 통도사의 창건 정신과 수행 전통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장 율사의 원력이 이어지기를 발원했다.

법요식에서 주지 현덕 스님은 "자장 율사께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금강계단을 세우셨다"며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계율을 삶의 근본으로 삼은 그 뜻은 오늘까지 통도사 대중의 수행을 이끄는 가르침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1381년의 역사에는 큰스님들의 치열한 정진과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들의 공양과 울력이 함께 깃들어 있다"며 "어려운 때에도 도량을 지킨 신심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보살행이 쌓여 오늘의 통도사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축사에서 "통도사가 자장 율사의 창건 이래 천년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왔다"며 "통도사의 전통문화가 온전히 보존되고 그 가치가 미래세대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통도사가 지닌 소중한 역사와 전통문화가 후대에도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양산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을 위한 영축장학금 전달식과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서예전과 사생실기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져 통도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 활동에 참여한 이들을 격려했다.

통도사는 올해 개산 1381주년을 맞아 '천년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영축문화축제를 진행했다. 국화 장엄과 미디어아트 문화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알렸으며, 10월 19일 개산대재 법요식을 끝으로 창건의 뜻을 기리는 주요 의례를 회향했다.

부산 '팔관회' 호국불교 정신 잇다

10월 17~19일, 범어사 일원서
어린이 수계 · 호국기원법회 등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팔관회가 호국불교의 정신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 재현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 일원에서 '2026 팔관회'를 봉행했다. 팔관회는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 전통의례로,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의례와 문화행사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17일에는 선재동자 팔관재계수계법회와 영유아 마정수기법회가 봉행됐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은 계를 받으며 불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전계사 정오 스님 등 삼화상 스님들은 아이들의 이마에 관정수를 찍는 의식을 통해 건강과 지혜로운 성장을 축원했다.

18일 범어사 특설무대에서는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 공연이 열렸다. 전재수 부산시장 등 지역 인사와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참석 대중은 고불문과 호국기원기도를 통해 국태민안과 국민의 평화를 발원했다.

이어진 백희가무 공연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 대사와 사명 대사 등 호국 승려들의 활약을 전통 가무와 음악으로 재현했다

19일 선문화관에서는 호국영령위령재가 엄수됐다. 불교계 지도자와 보훈가족, 군·경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회장 정오 스님은 대재사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그 숭고한 뜻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미래세대에 길이 전해야 할 소중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위령재 후 봉행된 팔관재계수계법회에서 수계자들은 고려시대 복식을 갖추고 팔관재계를 받으며 계율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 위령재

동래구불교聯, 10월 16일
금강공원 임진의총서 봉행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는 10월 16일 부산 금강공원 임진의총에서 '동래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위령재'를 봉행하고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절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동래구불교연합회장 자관 스님과 부회장 정현 스님, 법관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최수용 동래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자관 스님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며, 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것은 내일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동래임진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략을 막아 동래성을 지키다 순절한 순국선열의 유골을 모신 무덤이다. 1731년 동래읍성 남문터에서 많은 유해가 발견돼 당시 동래부사 정언섭이 유해 6구를 거둬 삼성태 서쪽구릉지에 안장하고 '임진전망유해지총' 비를 세웠다. 그 후 1974년 복천동에서 금강공원으로 합동 이전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2000년부터 매년 음력 4월15일 재를 올렸으며, 2010년부터는 동래읍성역사축제 개막일에 맞춰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원각사, 비로자나불 대불 점안

10월 17일, 복장 · 개금 점안법회
정여 스님 "자성의 광명 깨워야"



부산 대원각사(주지 도천 스님)는 10월 17일 법신 비로자나불 대불 복장·개금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를 비롯해 대원각사 회주 안도 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비로자나불의 원만한 점안을 축원했다.

법회는 각현 스님의 법고시연과 성현 스님의 타종 5타로 시작됐다. 이어 개회사,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비로자나불 점안의식, 법어, 회주 안도 스님의 인사말과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점안법어에서 "오늘 대불의 복장에 정성을 모으고 황금빛 법신으로 새롭게 나투시며 눈을 밝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깃든 자성의 광명을 깨우는 불사"라며 "비로자나불의 자비광명은 차별이 없이 두루 비추어 만물을 살린다"고 강조했다.

대원각사 회주 안도 스님은 "불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며 "이번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도량을 아끼고 정진을 이어온 사부대중의 지극한 신심과 원력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사에 담긴 신심과 원력을 이어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환경보살이 되겠습니다"

미소원 제3회 환경참회기도
250명 동참…"일상 실천"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환경오염에 대한 참회와 생명존중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소원은 10월 20일 미소원 법당에서 제3회 환경참회 및 수자영가기도를 회향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부산 녹색사찰 1호 도림사 정찬 스님을 비롯한 기도 동참 불자들이 함께했다. 불교환경연대와 지역 사찰 및 단체에서도 뜻을 함께해 지난해보다 참여자가 늘었으며, 전체 동참 인원은 250여 명이다.

참석자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를 살리는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마음을 밝히고 국토를 청정하게 가꾸는 환경보살의 실천을 다짐했다.

안도 스님은 "환경참회기도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사찰에서도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가 버리는 작은 쓰레기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미소원은 작은 단체지만 환경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이러한 실천이 다른 사찰과 단체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동참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명 대사 가사 재현 '첫선'


밀양 표충사는 10월 20일 제566회 사명 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하고 사명 대사 가사 복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10월 20일, 표충사 추계향사서
진각 스님 "호국 정신 계승"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지킨 서산·사명·기허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계향사를 봉행하고, 사명 대사의 가사 복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표충사는 10월 20일 경내 사당에서 '제566회 사명 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대종사는 추모사에서 "사명 대사의 충의정신과 구국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후손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될 것"이라며 "대사의 유훈을 계승해 남북의 평화와 세계 화합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표충사가 1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사명 대사 가사 복제 불사의 성과물이 처음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표충사에 보존된 사명 대사의 가사와 장삼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훼손이 심해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기 전에 후대에 온전히 전승하고자 복제 불사를 발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 가사 제작에 정통한 명천 스님과 함께 원단의 재질과 색상, 문양, 제작 방식 등을 철저하게 고증해 약 1년 만에 가사를 완성했다"며 "장삼은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내년 봄 향사 때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복제한 가사는 25조 가사의 전통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모란꽃과 매화꽃 등 다양한 전통 문양을 재현했으며, 원단의 직조부터 천연염색, 바느질, 가사 고리 제작에 이르기까지 관련 유물과 자료를 고증해 원형에 가깝게 제작했다.

공개된 가사는 참석자들이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됐다. 홍제중학교 학생들은 명천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25조 가사의 구조와 전통 문양, 제작 과정 등을 살펴보고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불교조계종 5대 종정 추대

10월 15일, 삼봉사서 추대법회
운붕 대종사 "자비 실천" 당부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녹원 스님)이 제5대 종정에 송운당 운붕 대종사(포항 대성사 회주)를 추대하고 종단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10월 15일 총본산인 밀양 삼봉사에서 '제5대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녹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추대법회를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종단의 종풍을 쇄신하고 승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운붕 스님은 포항 대성사를 중심으로 불법홍포에 힘써왔으며, 불교문화와 대중예술을 접목한 문화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8년 사단법인 사명당기념사업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불교문화 계승과 선양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운붕 스님은 "스스로가 온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일상에서 다툼과 차별을 넘어 대자대비의 향기를 피워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종정 추대법회를 계기로 청정한 수행 가풍을 계승하고, 사부대중의 화합을 바탕으로 불법홍포와 종단 발전의 새로운 원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15년 역사 이어 전법 매진"

응공조계종 창종 15주년
10월 18일, 총본산 동명사서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이 창종 15주년을 맞아 종단 발전을 기원하고 청정 수행과 전법도생의 원력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응공조계종은 10월 18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 대웅전에서 '창종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문도회장 해진 스님은 봉행사에서 "종정 법운 대종사께서는 청정 수행과 전법도생의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며 불교 발전과 중생 교화에 헌신해 오셨다"며 "그 숭고한 원력과 가르침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회의장 혜광 스님은 축사에서 "창종 15주년을 맞아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한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소멸하는 등불이 되고, 응공조계종이 정법을 널리 전하며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종단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자는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거나 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며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승려들의 수행과 교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종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배우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총화종, 화쟁의 지혜로 갈등 넘어 상생으로

10월 17일, 총본산 실상사서
사회적 약자와 화쟁문화축제
화쟁문화 체험 · 산사음악회 등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한불교총화종은 10월 17일 총본산 영동 실상사에서 '한 마음, 한 꽃 피우기' 화쟁문화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 총화종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생과 화합을 모색하는 화쟁의 장을 펼쳤다.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10월 17일 총본산 영동 실상사에서 '한 마음, 한 꽃 피우기' 화쟁문화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실상사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화쟁은 단순히 갈등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을 깊이 경청하고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서로 융합하여 더 큰 하나를 이루는 지혜"라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의 벽은 허물어지고 사회적 통합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충청지사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 송이 꽃은 작아 보이지만 많은 꽃이 함께 피어나면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듯,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자비로운 마음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밝히는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화종은 종단의 미래비전 선언을 통해 '상구보리하화중생'의 현대적 구현을 위한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선언문에는 정법의 일상화를 통해 현대인의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는 자비 종단을 구현하며, 디지털 시대의 기술환경을 활용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미래형 포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교문화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감사패는 총화종 복지원장 조향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수불 스님, 현대불교신문 유재상 충청지사장에게 주어졌다. 또 종단 발전에 기여한 경남교구 혜원암 주지 명혜 전법사에게는 최고 명예 법계인 대법사 법계가 수여됐다.

순천 동화사 극락전 밝힌 53불

10월 18일, 극락전 점안 · 낙성식
53불 봉안 · 일주문 건립 불사 회향



순천 동화사가 극락전 53불 점안과 일주문 건립 불사를 회향하며 새로운 도량의 모습을 갖췄다.

순천 동화사(주지 성문 스님)는 10월 18일 '극락전 53불 점안식 및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하며 53불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퍼지고, 새롭게 조성된 일주문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서는 청정한 관문이 되기를 발원했다.

동화사는 2023년 7월 극락전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했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외부 건물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2025년 3월 공사를 재개해 2026년 9월 일주문을 완성했다. 극락전과 일주문 건립에는 도비 4억3천200만원과 시비 5억4천800만원 총 9억8천만원이 투입됐다. 이와 별도로 2025년부터 사찰 자부담 3억원을 들여 극락전 내부 불상 조성불사를 진행했다. 특히 극락전에는 기존 아미타부처님을 중심으로 53불을 새롭게 봉안해 도량의 신앙적 의미를 더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불공이라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곧 극락세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BBS대구불교방송 제14대 사장에 선광 스님

임기 2028년 10월까지 2년



BBS대구불교방송 제14대 사장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이 선출됐다.

BBS대구불교방송은 10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광 스님을 신임 사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임기는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

선광 스님은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 "개국 30주년을 맞은 BBS대구불교방송이 신사옥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포교와 언론 창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인현왕후 기도, 복위의식으로 되새기다

김천 청암사, 10월 18일 봉행
민요 공연 등 축하 음악회도


인현왕후가 복위 교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1667~1701)가 폐위의 시련 속에서도 기도와 인내로 복위를 이룬 과정을 재현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문화 행사가 열렸다.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 스님)는 10월 18일 보광전과 대웅전 일원에서 '제10회 인현왕후 복위의식 재현 및 복위 축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689년 기사환국으로 폐위된 인현왕후가 청암사 극락전에 머물며 3년간 기도한 뒤 1694년 복위한 역사적 인연을 기리고, 사찰에 전해지는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복위의식에 앞서 청암사 스님들과 함께 인현왕후의 소망과 현대인의 평안을 기원하는 '인현왕후의 기도'를 봉송했다. 이어 교지 전달 의식과 복위 행렬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가마에 연결된 기원의 줄을 함께 잡고 인현왕후의 복위를 축하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은 "인현왕후의 복위식은 간절한 기도로 오해를 풀고 행복을 이룬 뜻깊은 역사"라며 "청암사가 인현왕후의 은거와 기도가 깃든 소중한 문화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축사에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한국의 도덕과 윤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번 행사가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마을 축제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11개월 아기도 외국인 청년도 부처님 제자

광주전남어청련, 제13회 수계산림
10월 17일 관음사서 29명 수계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상임대표 무등 스님·이하 광주전남어청련)은 10월 17일 광주 관음사 대웅전에서 '제13회 영유아·어린이·청소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산림에는 생후 11개월 영유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22세 외국인 청년까지 모두 29명이 수계를 받았다. 또한 부모 10여 명도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부처님의 제자로 첫발을 내딛는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수계산림은 효공 스님(녹야원)을 전계대화상으로, 무등 스님(천룡사)을 갈마아사리, 도성 스님(복암사)을 교수아사리로 모시고 진행됐다.

수계의식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호궤합장한 가운데 스님들이 수계자들의 머리에 청정수를 뿌리는 관정의식에 이어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수계자들은 계율을 받아 지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수계첩과 염주, 기념선물이 전달됐으며, 참석한 스님들과 가족들은 박수로 새로운 불자의 탄생을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천 직지사 자연수목장림 '극락원' 개원

10월 17일, 개원식 및 점안식 봉행
황악산 자락 2만평 2000기 규모



천년고찰 김천 직지사가 자연과 생명의 순환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자연수목장림 '극락원(極樂園)'을 조성하고 친환경 장묘문화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장명 스님)는 10월 17일 개원식과 약사여래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극락원은 약 2만평 규모의 숲에 200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부부목과 가족목 등 다양한 추모목을 갖췄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기존 숲의 생태계를 보존해 자연의 품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에서 와서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불교의 연기법과 회향의 가르침을 일상 속 장례문화로 구현한 친환경 장묘시설이라는 게 직지사 측의 설명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처인성서 김윤후 승장 호국정신 새기다

용인시불교사암聯 · 파라미타
10월 17~18일, 청소년 문화캠프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호스님)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함께 10월 17~18일 처인성 일대와 용인 좋은절(주지 법경 스님)에서 '김윤후 스님과 함께하는 청소년 호국불교 문화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과 공동체적 가치를 알리고, 수행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동국대 부속 가람고 학생 20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처인성 역사 순례, 호국불교 교육, 사찰예절 체험, 108배 명상, 걷기 명상 등 역사와 함께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처인성 전투 현장을 찾아 성터를 순례하며 주민들의 항쟁 역사를 배웠다.

다음날에는 인근 광교산에서 걷기 명상이 진행됐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범일 국사 탄신 1200주년 사업 본격 추진

범일국사선양회, 10월 14일 발표
다례재 · 학술 콘서트 등 5개 확정

통일신라시대 사굴산문(闍崛山門)의 개산조이자 강릉의 정신문화와 공동체 전통을 상징하는 범일 국사(810~889)의 삶과 사상을 기리고, 이를 현대적 문화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한 기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범일국사선양회(회장 청우 스님)는 10월 14일 임원진 회의를 열고 '세상을 밝히는 신성한 빛, 범일 국사 탄신 12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범일 국사의 탄신 1200주년을 계기로 한국불교사와 강릉 지역사에서 차지하는 범일 국사의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의례 중심 기념사업에서 나아가 학술 연구와 체험, 공연을 결합해 범일 국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이해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2억원이다. 국비와 강릉시비를 각각 1억원씩 투입하는 계획으로, 범일 국사 탄신 기념 다례재를 비롯해 학술 콘서트, 문화캠프, 토크콘서트, 창작공연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갑룡장학회, 제13회 장학금 수여식

청소년 31명에 장학금 1050만원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회주)가 10월 19일 사단법인 붓다봉사단 진안복지관에서 제13회 봉사나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정아현 건양대 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9명과 초·중·고등학생 22명 총 31명의 지역 청소년에게 장학금 1050만원이 전달됐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마이산의 돌탑이 정성으로 쌓여 굳건한 모습을 이루었듯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진안군을 밝히는 희망의 탑을 쌓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따뜻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설립된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는 자원봉사자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명 금강정사, 지역 문화 거점 도약

10월 17일, '명상 힐링 콘서트'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발원"



광명 금강정사(주지 가섭 스님)는 10월 1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명상 힐링 산사콘서트 및 전통문화체험관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4회 문학으로 만드는 마음의 평안, 금강위크' 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금강정사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치유 공간으로 도약하는 출발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클래식부터 대중 음악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금강정사 회주 지홍 스님은 "금강정사가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전통문화와 명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열린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사람으로 다친 영혼 사람으로 위로"

강릉 현덕사, 동식물 천도재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스님)는 10월 17일 개산 27주년 기념법회와 동·식물 천도재 '사람으로 다친 영혼 사람으로 위로'를 봉행했다.

법당 앞마당에 마련된 법단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의 위패와 이름, 사진, 그림 등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눈길을 끌었다. 공양물 역시 동물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마련해 먼저 떠난 생명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았다. 현덕사의 동·식물 천도재는 1999년 사찰 창건 당시부터 이어져 온 생명 존중의 실천이다.

올해 천도재 역시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은 물론 경찰·소방·군 구조견, 의약품 개발과 임상시험 과정에서 희생된 실험동물,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야생동물 등 다양한 생명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천도재에 손병우 춤 전승원의 산조춤을 시작으로 기악합주와 판소리, 남도민요, 헌화무와 살풀이춤 등이 약 50분간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동격 지사장

일타 대종사 연구 '본격화'

은해사 주최 · 대각사상연구원 주관
10월 21일 동국대서 학술세미나
삶 · 사상 재조명, 연구 체계화 '물꼬'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10월 21일 동국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은해사 · 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20세기 한국불교의 대선지식 일타 대종사(1929~1999)의 삶과 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미진했던 일타 스님 관련 연구를 학술 체계로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들은 일타 스님이 조계종 청정승가의 토대를 마련한 대율사이자 선·교·율을 아우른 수행자였음을 입증하고, 생전 텍스트·음성 분석과 당대 계율학자와의 비교 연구, '일타 스님 기념관' 건립 등 본격적인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영천 은해사(주지 성로 스님)는 10월 21일 동국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 주관으로 '2026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발표자들은 일타 스님의 계율, 선풍, 교화행, 호국불교의 면모를 다각도로 규명하고, 향후 사료 수집과 종합 연구, '일타 스님 기념관' 건립 등 지속적인 연구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해사 회주 돈명 대종사는 '일타 큰스님을 추모하면서' 기조강연을 통해 "일타 큰스님은 기도, 연비, 6년 결사, 참선 정진, 경전 및 율장 수행 등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며 "한두 번의 학술행사로 스님의 업적을 모두 다룰 수 없는 만큼 분야별·주제별 세미나의 지속적 개최와 자료집 보완 발간, 인연 이야기 및 증언 채록 등 연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는 '일타 스님의 생애와 사상-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친·외가 41명 출가라는 희유한 집안 내력과 태백산 도솔암 6년 결사 등 스님의 치열했던 정진의 삶을 조명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기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자료 수집과 증언집·사진집 발간, 저술의 인문학적 바탕 규명, 당대 계율학자와의 비교 연구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포교·문도 정체성의 거점이 될 '일타 스님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겸임교수 법장 스님도 '일타 스님, 율사로서의 위상' 발표에서 "스님은 계율 실천과 수행을 통해 조계종이 청정승가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한 대율사"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재조명을 주문했다.

전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일타 선사의 수행론-선사상과 선풍을 중심으로'에서 "친·외가와 속가 관계자 등 41명이 출가한 이력은 한국불교사에 새로운 이적과 출가 모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일타 스님의 교화행' 발표에서 향후 녹음·영상 법문에 대한 설법 구조 분석, 생전 간행본과 사후 편집본 비교, 해외 교화 자료 발굴 및 구술 채록을 후속 과제로 꼽았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은해사의 호국불교와 일타 스님' 발표에서 "은해사의 역사 복원과 사격 재정립은 일타 스님의 불타주의와 선구적 혜안 덕분"이라며 스님의 자리이타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은 "업적과 법문이 많으신데 애석하게도 일타 스님 관련 세미나를 15년 전 한 번 개최한 후 지금까지 못해 왔다"면서 "앞으로 일타 스님의 연구를 더욱 확장해 일타 스님의 생애를 한 권의 책으로도 모으고 또 문집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은 "오늘 세미나는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가르침이 지닌 의미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은해사 역시 큰스님의 수행·지계·자비·전법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 속에 법향이 퍼지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기영 박사 30주기…학문과 구도행 살핀다

한국불교硏, 11월 6일 심포지엄
서적 2종 개정판으로 재출간도

한국불교연구원이 창립자인 불연 이기영(1922~1996) 박사의 타계 30주기를 맞아 그의 뜻을 기리는 학술 행사를 열고, 1주기 무렵 펴낸 책 2종을 개정판으로 선보인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주형)은 11월 6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불연과 불교, 학문과 구도행'을 주제로 30주기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벨기에 루뱅대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기영 박사는 불교 연구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이끌었다. 1963년 동국대에 인도철학과를 창설하고, 원효 스님 연구에 앞장서며 한국불교의 사상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1974년 한국불교연구원을 설립해 재가불자 교육과 학술 연구에 헌신했으며, 1996년 타계할 때까지 저·역서 50여 권과 논문 130여 편을 남겨 한국 불교학의 지평을 넓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30주기를 맞아 그의 뜻을 기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간절히 빌고 생각한다는 뜻의 '기념(祈念)'을 표제로 삼았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제4대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이 기념사, 하재웅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 전 회장과 정호영 한국불교연구원 제3대 원장(충북대 명예교수)이 '불연 선생님을 기리며' 헌사를 이어간다.

심포지엄에서는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 제4대 원장(한국종교문화연구소 전 이사장)이 '불연의 학문적 위상, 그리고 우리 통념의 한계는 무엇일까'를, 박보람 충북대 교수가 '돌아갈 일심(一心)은 무엇인가-일심 논의를 통해 본 불연의 한국불교 연구'를,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이 '현대 재가불교운동에서 불연의 자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행사는 영상 상영과 불연전집 간행 보고, 이주형 한국불교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폐회사로 마무리된다.

아울러 한국불교연구원은 이기영 박사의 타계 1주기 무렵 출간했던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1997)와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1998)의 개정판을 '불연불교강의' 시리즈로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앞으로도 이기영 박사의 주요 저술을 엮어 사회평론아카데미의 '불연불교강의' 시리즈로 계속 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30주기 강연문과 10주기·15주기 국제학술세미나 발표작을 모은 학술서 발간은 물론, 생전 강의 녹음·영상 자료를 내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배희정 기자

탄허 선사 종교사상 조명

한국종교교육학회 · 한국불교학회
10월 31일 서울 동국대 문화관서

이웃 종교 학자들과 함께 탄허 스님의 종교사상과 교육 철학을 조명하는 학술의 장이 열린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손원영)와 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세미나실에서 '세계종교에서 본 탄허 선사의 종교사상'을 주제로 2026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종철 종교교육학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한암의 선불교적 교육관과 교육이념'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종립대학 종교교육, 탄허에게 길을 묻다: 동국대학교 대학선원장 활동의 교육적 함의(박진영) △탄허의 교육철학: 인재양성과 삼교융합 교육철학(윤창화) △동학으로 본 탄허 선사의 불교교육사상(정혜정)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윤종갑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2부에서는 신창호 고려대 교수의 '탄허 선사의 불교 정신에서 탐색해 보는 교육의 의미', 박병훈 원광대 연구교수의 '탄허의 역학사상 연구', 김남희 가톨릭대 교수의 '탄허 선사의 예지력과 김수환 추기경의 카리스마, 그 집중과 확산에 대하여'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박성일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의 '탄허의 계율관 연구: 〈범망경〉 및 이사무애계', 황진수 선문대 교수의 '종교신학의 관점에서 본 탄허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의 '탄허의 회통과 유동식의 풍류의 만남: 상호종교교육을 위한 '회통-풍류학적 접근'의 가능성 탐색'이 발표된다. 발표 종료 후에는 종합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가 탄허 스님의 종교·교육 사상을 되새기는 한편, 우리 사회의 종교 교육과 종교 간 이해에 실질적 시사점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희정 기자

전통 다비작법의 보존·전승 모색

전통다비작법보존회, 10월 23일
무형유산 전수조사 성과 발표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사)전통다비작법보존회(이사장 무공 스님)는 10월 23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 전통 다비작법(茶毘作法),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 한국불교 다비'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2021년부터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불교무형유산연구소)와 함께 진행해 온 '전국 전통 사찰 무형유산 전수조사'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조계종 의례위원장이자 보존회 상임이사인 원명 스님은 '전통다비작법: 불교무형유산 살아 숨 쉬는 오늘의 가치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금강 스님(중앙승가대)이 좌장을 맡아 좌담회를 진행한다. 좌담회에는 무공 스님, 원명 스님, 혜일 스님(해인사 주지), 도신 스님(수덕사 주지),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 성원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수경 스님(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등 보존회 이사 스님들이 참여해 전통다비 전승을 위한 종단적 지원과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실천적 로드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다비 전통과 그 불교적 의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이어 △다비설행에서 염습작법(각진 스님) △불교 전통 다비장(연화대) 조성 기술의 역사성과 가치(철인 스님) △현대 한국불교의 다비설행 현황과 발전 방안(황근식) △중국불교 다비의 현황 고찰(곽뢰) △현대 일본 승려의 장례법에 대한 고찰(이태승) 등 5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배희정 기자

정미년 불교달력은 마하몰로 주문주세요!!

마하몰에서는 불기 2571(서기2027)년 불교달력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와 사이즈, 더 좋은 이미지와 사진들로 구성된 달력들을 다양하게 준비 하였습니다. 한지, 달력(大, 小), 차걸이, 수첩, 마닐라, 등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제작 · 공급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호 동심불 이야기 5월


201호 천진불


203호 산사의 향기


204호 암자에 길을 묻다


205호 그리운 금수강산


206호 부처님의 꽃 수련의 세계


208호 밝고 향기롭게


102호 관음도(한지)


211호 마음의 고향


214호 수행정진


215호 견성성불 달마도


216호 부처님의 성지


217호 산사의 꽃 야생화


224호 12별자리와 신비한 부적


참나를 찾아서(차걸이)


오늘은 좋은날 행복한 미소(차걸이)


밝고 향기롭게(수첩) 동심불 이야기(수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가사부터 주장자까지…일상에 깃든 수행

범어사 성보박물관 10월 20일 개막
'쯧! 생각을 멈추는 소리' 특별전
개산 1348주년·이전 5주년 기념
"일상 멈추고 자신 돌아보는 계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쯧! 생각을 멈추는 소리, Inner Pause' 특별전을 10월 20일 성보박물관 1층 상설전시관에서 개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K-museum 특별전 '쯧! 때 생각을 멈추는 소리, Inner Pause'를 10월 20일 성보박물관 1층 상설전시관에서 개막했다.

범어사 개산 1348주년과 성보박물관 신축 이전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엄숙하고 무거운 교리 대신, 스님들의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 제목인 '쯧!'은 선(禪) 수행 과정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내지르는 짧고 단호한 소리인 한자 '돌(咄)' 혹은 '할(喝)'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바쁜 나날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Inner Pause) 스스로의 내면을 점검하자는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사찰의 일상생활과 쉼을 엿볼 수 있는 150여 점의 다채로운 유물과 시청각 자료로 전시장을 채웠다. 전시는 관람객들을 자연스럽게 스님들의 일과 속으로 안내하며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구성된다.

전시의 도입부는 도량의 새벽을 깨우는 소리로 시작된다. 1728년 조선 후기 주성된 '범어사 동종(부산시 유형문화유산)'의 소리는 대중의 기상과 예불을 알리며, 스님들의 수행과 삶이 맞닿는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식(食)과 의(衣)에 깃든 절제' 공간에서는 먹고 입는 일상 속 불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사명대사가 선조에게 하사받았다고 전해지는 표충사 소장 '연엽형 발우(경남 유형문화유산)'는 연꽃잎 모양으로 여러 겹을 포개어 보관하도록 실용적으로 제작돼,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검소함을 보여준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용성 스님의 붉은 가사와 가사고리도 나란히 놓여 수행자의 절제된 의생활을 조명한다.

오후의 고단함을 뉘이는 '소박한 쉼의 공간'은 이번 전시의 백미 중 하나다. 스님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날 때 볕과 땀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삿갓, 땀받이를 비롯해 휴식을 취할 때 베던 목침, 곰방대와 효자손 등 친근한 생활용품들이 공개된다. 여기에 스님들의 모습을 포착한 흑백 사진 20여 점이 생생함을 더한다. 현재 범어사 교무국장 효천 스님과 연수국장 장산 스님이 영상으로 들려주는 유쾌한 절집 생활과 실수담도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전시의 마지막은 하루를 닫는 '의례와 성찰'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번뇌를 끊어내려 내리쳤던 주장자와 마음을 다잡던 염주는 물론, 1965년 범어사 수계식 사진과 당시 실제 의례 공간을 장엄하는 데 쓰였던 '구룡도병풍', '자수수복문병풍(부산시 문화유산자료)' 등이 공개되며 관람객들에게 고요하고 깊은 여운을 남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은 "절집에서는 모든 평범한 일상이 곧 수행"이라며,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오늘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불교문화 품은 산 '명승'이 되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월출산 일원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가치 인정


국보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빼어난 자연경관과 불교문화를 품은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과 '월출산 일원'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과 '월출산 일원'을 각각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정족산 전등사 일원은 산세를 따라 축조된 삼랑성과 전등사, 사찰림과 노거수, 개방감 있는 조망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산성과 가람의 배치로 경관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고려시대 가궐과 국가 불교의례, 조선시대 사고(史庫)와 선원보각, 병인양요 승전지 등 여러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깊게 서린 곳이기도 하다. 고려 이색 등 문인의 유람 기록을 비롯해 고문헌과 고지도에 역사·경관 기록이 두루 남아 있다. 삼랑성과 전등사를 잇는 옛길은 사찰 참배와 유람, 주민의 생활 통로로 쓰여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더한다.

국가유산청은 "정족산의 자연지형과 전등사, 정족산사고, 사찰림 등 다양한 인문환경이 어우러져 역사문화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월출산 일원'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국가 제사를 지낸 천황봉을 품은 영산이자,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서남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 역사적 공간이다.

월출산에 자리한 무위사는 선종 사찰의 전통과 조선 전기 왕실 후원 아래 조성된 극락보전과 벽화 등 불교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통일신라 때 도선 국사(827~898)가 창건한 도갑사는 관련 기록과 왕실 후원, 다수의 문화유산을 통해 왕실 불교와 지역 사찰의 관계를 보여준다. 월출산 일대에는 이 두 사찰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찰지와 마애불·석탑·비석·부도 등 풍부한 불교문화유산이 분포해 있다.

평야에서 솟아오른 독립 화강암 산괴로 풍화 지형이 발달해 있고, 특이 식충식물 등 다양한 식생이 서식해 생태학적 가치도 크다. 지형과 관련된 신앙과 설화, 시대별 다양한 명칭, 정약용·김창협 등의 유산기와 시문 기록이 전해져 인문지리·민속·기록유산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유산청은 "화강암 산악경관을 기반으로 국가 제의와 불교문화, 시문과 옛 기록이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산악 문화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대해 전등사 주지 지불 스님은 "이번 정족산 전등사 일원 명승 지정은 인천에서 1997년 백령도 두무진 해변 지정 이래 29년 만의 쾌거"라며 "최근 안보 이슈와 교통체증 등으로 침체된 강화 관광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등사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 기간을 명승 지정 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거리 배너와 현수막 설치, 강화군 관내 전광판 축하 영상 상영 등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두 명승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희정 기자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⑥① 체로금풍(體露金風)

초라한가, 당당한가?

體 露 金 風

가을 산은 눈부시다. 온갖 수목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펼쳐내는 단풍의 향연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소동파(1037~1101)가 "시냇물 소리는 부처의 설법이요, 산빛은 어찌 부처의 청정한 몸이 아니겠는가(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라고 읊었듯, 산과 들은 그 자체로 부처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그러나 찬 바람이 불면 무성하던 잎들은 이내 떨어지고, 산은 낙목한천(落木寒天)의 헐벗은 모습을 드러낸다.

이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엇갈린다. 앙상해진 가지에서 쓸쓸함과 허무를 느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잎을 모두 떨군 나무에서 오히려 담담한 평온과 의연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도 있다. 잎이 지고 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선불교의 공안집 〈벽암록〉 제27칙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나온다. 한 수행자가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 선사에게 물었다. "나무가 시들고 잎이 떨어질 때는 어떠합니까?" 운문 선사는 짧게 답했다. "체로금풍(體露金風)." 가을바람[金風]에 잎이 모두 떨어지고 나면, 나무의 본체[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이다.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 선사는 이 화두를 찬탄하며, 넓은 들판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하늘 높이 가랑비 자욱한 가운데 소림사에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는 달마의 모습을 그려 냈다. 마츠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의 하이쿠 "마른 가지에 까마귀 앉아 있네, 가을 저물녘"에서도 비슷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선사와 시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깃든 맑고 고요한 존엄을 보았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직함과 재물, 권력과 명망이라는 외적 조건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다. 가면을 벗는 순간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스스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내면을 돌보기보다는 외적인 치장에 몰두한다. 자신의 가치를 외적 조건에 의지하는 한, 그것들을 잃는 일은 곧 자신을 잃는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잎을 모두 떨군 겨울나무에도 나무의 생명은 그대로 깃들어 있다. 무성한 잎에 가려져 있던 뿌리와 줄기의 모습도 한층 선명해진다. 겉모습의 변화가 존재의 가치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의 묘비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가을 산을 바라보라. 그리고 부질없는 허울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본래의 자신으로 설 수 있다. 그것이 곧 체로금풍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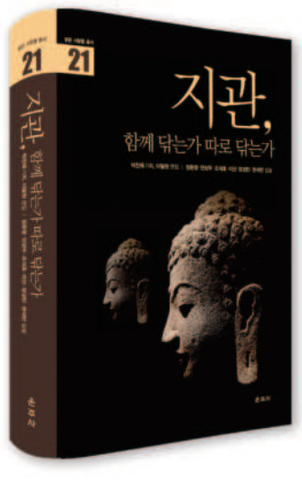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3,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20,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3,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4,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5,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23,000원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이필원 외/25,000원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정준영 외/26,000원

지관,
함께 닦는가 따로 닦는가
학술연찬회
주제: 지관, 함께 닦는가 따로 닦는가
일시: 11월 7일(토) 10시-18시
장소: 동국대학교 본관 남산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수행 방법인 지(止, 사마타)와 관(觀, 위빠사나)는 서로 다른 수행인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르고,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닦아야 한다면, 동시에 닦는 것인가, 순서가 있는가?

정준영·안성두·조석효·미산·엄성민·권석만 집필
신국판양장/값 27,000원



Ch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식사부터 예체능 교육까지…보리수아동센터의 동행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

④ 미래세대 키우는 보리수아동센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보리수아동센터는 주 5일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요일마다 식단을 달리해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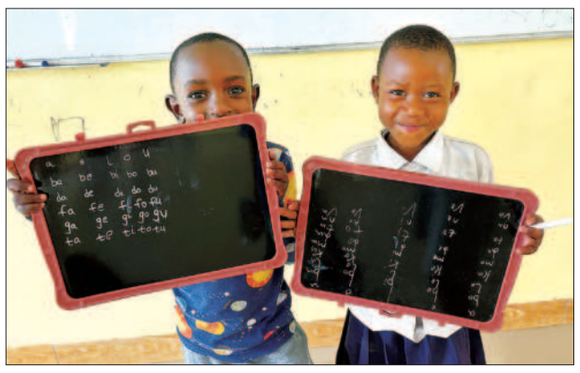


미술 수업은 주 2회 전문 한국인 단원이 지도한다.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체육 수업에서는 신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한편,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자신감을 키운다.

아름다운동행, 2024년 개원
취약 아동 80~90명 정기 이용
주 5일 급식에 미술·체육·학습
"배움·놀이로 도전 정신 키우길"



스와힐리어 읽기와 쓰기 교육도 진행한다. 읽고 쓰지 못했던 아이들도 보충 수업을 통해 점차 글을 읽고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쓸 수 있게 된다.



방학기간에는 음악 수업을 마련해 다양한 악기를 접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 므와송가 마을의 학교에서는 교과서 한 권을 4~5명의 학생이 함께 사용한다. 수업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해야 해 집에서 복습하기도 어렵다. 한 교실에 100여 명이 모여 수업을 듣고, 교실이 부족해 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미술과 음악, 체육 수업에 필요한 교구는 물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넉넉하지 않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은 2014년부터 탄자니아에서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인 '해피콘(HAPPY CORN)'을 진행하며 이 같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마주했다.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학교에서 충분히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술과 음악, 체육 등 예체능 활동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하는 데 중요하지만, 현지 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

아름다운동행은 아이들이 학교 수업 후에 찾아와 식사하고 공부를 보충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 후 공간을 구상했다. 그렇게 2024년 문을 연 곳이 탄자니아 보리수아동센터다. 2016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세운 아름다운동행이 대학 인근 마을의 아동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관을 확장한 것이다.

보리수아동센터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방과 후에 안전하게 머물며 식사와 학습 보충, 예체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한 끼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먹고 배우고 노는 공간 꿈꾸다

개원 3년 차에 접어든 보리수아동센터는 므와송가 지역의 3~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 아동 가운데는 5~10세가 가장 많다.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는 아동은 80~90명이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약 130명이 센터를 거쳐 갔다. 이용 아동의 약 98%는 취약계층이다.

처음 센터를 찾은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이용 허락을 받고 약 10일간 꾸준히 출석한 뒤 신상카드를 작성해야 정식 등록된다.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센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식사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며 밥과 콩을 비롯해 소고기 스튜와 달걀, 닭고기, 과일 등을 요일별로 식단에 올린다. 금요일에는 주스와 비스킷도 함께 제공한다.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술·체육…배움의 즐거움 키우다

보리수아동센터는 주 2회 미술과 체육 교육을 하고 주 4회 학교 공부를 보충한다. 방학에는 한국어와 음악 수업도 진행한다. 예산이 허락하면 연간 한두 차례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고 체육대회와 설날 행사를 마련한다. 교과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또래와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다.

센터 운영은 한국인 단원 2명과 현지인 직원 3명이 맡고 있다. 학습 보충 아이들 수준에 맞춰 진행하며 미술과 체육 수업은 관련 분야의 한국인 단원이 현지 직원과 함께 이끈다.

예체능 교육은 센터가 특히 힘을 쏟는 분야다. 현지 학교에서 미술과 음악, 체육을 충분히 경험하기 어려운 만큼 센터에서라도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림을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다.

교육의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수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스와힐리어를 읽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숫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읽고 연산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아동이 늘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던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는 모습도 보인다.

잘 먹고, 배우고, 친구들과 놀아서일까. 개원 초기와 비교해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롭게 찾는 공간되길

보리수아동센터가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을 돕고 있지만 더 많은 아이에게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 교실과 식당이 좁고 교육 인력도 부족해 이용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센터에서 거리가 먼 아이들까지 지원하려면 시설과 인력을 늘리는 한편 통학을 돕는 차량도 마련해야 한다.

예체능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 분야의 봉사자와 교육 기자재 확보도 필요하다.

조용진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지부장은 "센터가 바라는 미래는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오는 곳이 아니라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찾아와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또래와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지역의 배움터로 자리 잡고 싶다"고 말했다.

따뜻한 한끼 '해피콘'

해피콘은 아름다운동행이 2013년 현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 해 시작됐다.

초기에는 보리가람대학 인근 4개 학교 아동 약 2500명에게 오전 10시 비타민과 칼슘이 함유된 영양죽을 제공했다. 옥수수와 쌀가루, 설탕, 마가린 등을 활용해 만든 영양죽은 수업 중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었다. 사업을 이어가면서 아동의 출석률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후원이 늘면서 지원 학교도 확대됐다.

현재는 정기후원자 약 170명의 도움으로 10개 초등학교 약 5800명의 아동에게 주 5일 영양죽을 제공하고 있다. 사찰이 직접 지원할 학교를 지정해 참여하는 등 후원 방식도 다양해졌다. 해피콘은 한 끼의 영양죽을 통해 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아동들이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끼 33원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아동 영양급식 지원

아이들을 지켜주는 한 컵의 옥수수죽 해피콘



10개 초등학교 5,700명 지원

칼슘·비타민 등 영양 섭취

초등학교 출석률 증진

해피콘 후원 바로가기 ▶

문 의 02-737-9595 | 홈페이지 www.dreaminus.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1~10/2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비스님의 천수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6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불광출판사
2	숫타니파타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7	거울 속의 물고기	백진순	모과나무
3	지송 한글 화엄경	해주 초역	불광출판사	8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불교 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4	무아와 일심	한자경	김영사	9	단정한 죽음	능인	불광출판사
5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10	붓다의 오리지널 명상법	일중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6	꽃한테 들어라	법정	지식을만드는지식
2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샘터사	7	불멸 (3)	이각	지혜의눈
3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8	법구경 이야기 (1)	무념,응진 역	옛길
4	진짜 나를 찾아라	법정	샘터사	9	은둔	조현	불광출판사
5	법정 스님 결 따라 사랑을 잇다	변택주	큰나무	10	밀교, 즉신성불의 길	화령	운주사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명상하세요!”



붓다의 오리지널 명상법
일중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원

초기 경전서 찾은 붓다의 수행법
스리랑카 · 인도서 ‘명상 뿌리’ 찾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일중 스님이 10월 13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책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가히 ‘명상의 시대’다. 마음의 평온을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호흡명상부터 걷기명상, 마음챙김까지 다양한 수행법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명상의 시원이라 할 ‘붓다의 수행법’은 무엇이었을까? 일중 스님은 그 답을 초기 경전에서 찾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요가명상학과 교수이자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위원인 일중 스님은 10월 13일 서울 조계사에서 첫 저서 〈붓다의 오리지널 명상법〉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의 의미를 소개했다.

스님은 명상을 “나를 바라보는 일이고, 지켜보는 일이고, 나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스님은 마음의 고통을 겪는 현대인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의 작용에서 찾았다. 스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몸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 생각을 잘 다루는 게 명상”이라고 말했다. 생각 자체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차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 제목의 ‘오리지널’은 초기 경전인 니까야와 상좌부불교의 대표적인 주석서 〈청정도론〉을 바탕으로 정리한 붓다의 수행법을 가리킨다. 명상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현대의 명상법이 어떤 가르침과 수행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일중 스님은 출가 후 운문사 강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인간 붓다의 가르침과 수행법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붓다가 어떤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직접 배우고 싶었다. 1990년 스리랑카로 건너간 스님은 10년 동안 초기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했으며, 이후 인도에서 다시 10년을 보내며 다양한 명상 전통을 경험했다. 귀국 후에는 대학과 불교대학 등에서 명상을 가르치며 수행법을 안내해 왔다.

책은 이러한 공부와 수행의 여정을 바탕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의 개념, 원리, 실천법을 체계적으로 풀어낸다.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산란한 생각과 번뇌를 가라앉히고 깊은 집중 상태인 삼매와 선정을 기르는 수행이다. 위파사나는 몸과 느낌, 마음과 현상을 지속해서 관찰하며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 수행이다.

스님은 두 수행을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술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마타를 통해 얻은 고요함은 통찰과 지혜로 이어져야 하며, 위파사나를 통해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현상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명상의 목적은 편안한 기분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데 있기 때문이다.

책에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비롯해 호흡명상, 자애명상, 연민명상 등 여러 수행법이 담겼다.

스님이 특히 중요하게 꼽은 수행은 호흡명상이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며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호흡명상은 붓다가 깨달음 전후에 수행하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스님은 호흡명상이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선정과 통찰을 아우르는 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명상이 마음의 휴식과 위안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중 스님은 그 효과가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말한다.

스님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괴로운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 수행한다면 명상의 지혜로, 붓다의 지혜로 괴로움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는 불교’에서 ‘사는 불교’로의 전환



왜 다시 붓다인가
조성택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괴로움 발생 조건 통찰하고
자유의 가능성 발견한 붓다



10월 19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성택 교수.

같은 말에 상처받고, 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며,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착을 반복한다. 불교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삶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다르기 때문 아닐까.

〈왜 다시 붓다인가〉는 불교학자 조성택 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해 붓다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책이다. 조성택 교수는 익숙한 불교 교리를 되풀이하기보다 그 가르침이 탄생한 출발점으로 돌아간다. 붓다는 인간의 괴로움에서 무엇을 발견했으며, 그 깨달음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다.

그러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문제를 다룬다. 불교를 안다는 것과 붓다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 사이의 간극을 살피며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서 인간의 자유와 변화 가능성을 찾는다.

조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붓다가 발견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다. 붓다는 괴로움을 인간이 감내해야 할 숙명으로 여기지 않았다. 괴로움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살폈고 그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통찰은 불교를 특정한 종교적 믿음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는 지혜로 바라보게 한다.

책은 먼저 붓다가 살았던 시대와 깨달음의 의미를 살핀다.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했던 붓다가 극단적인 수행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사실은 수행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견디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괴로움이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다. 행복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작용을 살피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으로 이어진다. 연기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다양한 조건과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통찰이다. 조 교수는 이를 단순히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설명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까지 살피는 관점으로 풀어낸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나’와 ‘세상’도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 속에서 형성되듯 괴로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책은 또 사성제와 팔정도, 삼귀의 등 불교의 주요 가르침을 삶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핀다. 교리를 이해하고 외우는 것만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발생 조건을 알아차리며 일상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이 지식의 축적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화는 특별한 수행 경험이나 거창한 성취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차리고, 익숙한 감정적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역시 수행의 과정이다. 자애와 연민, 기쁨과 평정의 마음을 기르는 사무량심과 마음챙김, 지관 수행 등을 통해 일상 속 수행의 의미도 짚는다.

저자가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상태와 다르다.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조건을 알아차리고 그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서 자유가 시작된다. 붓다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인간에게 열어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성택 교수는 “26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붓다의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괴로움과 자유에 관한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것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해한 지혜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붓다를 다시 만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흔들리는 마음에 중심이 필요할 때,
‘괴로움의 허상을 꿰뚫어 보라’는
그 한 마디!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라!

“독송을 넘어 앎이 주는 해소감과 깊이 있는 지적 자부심을 채우는 시간”
자현 스님의 경전 특강

01 인생이 흔들릴 때 열반경 공부
02 마음이 흔들릴 때 반야심경 공부
- 자현 스님의 경전 특강은 계속됩니다.

2 자현 스님의 경전 특강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반야심경』!
600권 『대반야경』의 방대한 가르침을 압축한
260자 속 진리를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과 함께
더 넓고, 깊게 읽는 시간!

괴로움의 허상을 직시할 때 마음의 걸림도 사라진다는 명쾌한 이치,
경전의 철학적 깊이와 역사·문화적 맥락까지 단단하게 채우는
자현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를 지금 만나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반야심경 공부

자현 지음 | 288쪽 | 양장본(올컬러)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떳떳하지 못함·우월함 모두 참회하라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⑳ 비겁함·비굴함 참회와 교만 참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비겁함·비굴함 참회

중급 참회에서 다음 참회 대상은 비겁함과 비굴함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용어이지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참회 방법이 같아 한 항목으로 분류했다.

참회 대상

비겁함 : 다음 몇 가지가 비겁함의 주요 참회 대상이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도 있다.

• 책임 회피: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마음이다.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을 경우에, 중요한 일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정의 외면: 다른 사람의 악행이나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외면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단체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의 부조리한 일이 생겼을 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한다.

• 의리를 지키지 않음: 인간관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켜져야 할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말한다.

• 정정당당하지 못함: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일이 있을 때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비난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비굴함 : 상식적인 수준 이상으로 자기를 굽히거나 아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공비례(過恭非禮, 공경이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좋지 않다.

참회 방법

참회 대상에 비추어 보아 과거 자신의 행위에서 비겁함이나 비굴함이 있었는가를 돌이켜 보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 마음을 참회한다. 만약 당시에 신업이나 구업 또는 다른 종류의 의업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참회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했다면 그런 일도 참회를 해야 하는 것이다. 비겁함이나 비굴한 마음이 있으면 간사하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주로 구업을 많이 짓게 된다.

어느 정도 참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마음이 생긴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 그러면 그 원인이 탐진치에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 탐진치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참회를 해야 한다.

보충 사항

비겁함과 비굴함을 참회해야 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무조건 '정의로운 해결사'가 돼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적 기준으로 볼 때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또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비겁함과 비굴함의 기준을 잡기가 곤란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이 참회를 할 때는 일단 현재 자기가 가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주변 상황을 참고하며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면 된다.

변화하는 시대에는 변화에 적응하는 사유의 패턴이 필요하다. 그것은 참회를 올바로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올바른 참회의 결과이기도 하다.

책임 회피·정의 외면 등 비겁함 참회 대상

자신을 굽히거나 아첨하는 비굴함도 해당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는 교만도 참회

타인 깔보는 생각 예의 없는 언행이 대상

참회 기준 회상하며 절하며 참회 진행해야

교만 참회, 납득 쉽지 않고 상당한 노력 要

교만 참회

교만이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말한다. 여기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교만함과 외형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갖추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된다.

참회 기준 : 안으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밖으로 예의를 갖추지 못했음을 참회함.

참회 대상

위의 참회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참회 대상이 된다.

• 안으로 한없이 자신을 낮추지 못함: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낮추지 못했을 때 해당한다.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대할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우등생이 열등생을 대할 때 등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못난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생각, 즉 '내가 너보다 잘났다', 또는 '너는 별거 아니다' 등의 마음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 때로는 자기와 비슷한 수준인 사람에게도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도 자기가 더 잘났거나 혹은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자신을 낮추지 못함에 해당한다.

'한없이' 낮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며, 그 낮아짐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에게도, 또 어린아이에게도 깔보는 마음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참회 대상이 된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아주 겸손한 말과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자신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참회 대상이다.

• 예의를 갖추지 못함: 밖으로 드러난 자신의 행동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았거나 건방진 언행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 마음이 참회 대상이다.

참회 방법

참회 대상이 되는 마음의 움직임 한 가지를 기억에 떠올린 다음 위의 참회 기준을 몇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고, 참회 기준 적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절을 하면서 참회를 진행한다. 그러다가 참회 대상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그 때마다 다시 참회 기준을 반복해서 몇 번 소리 내어 읽고, 익숙해지면 다시 참회를 계속한다.

보충 사항

교만 참회는 반야 참회에서 중심이 되는 참회다. 이 참회는 고급 참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참회이며, 초급 참회가 상당히 익숙해지지 않으면 참회가 어렵다. 초급 참회를 마친 경우에도 교만 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 몇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참회 대상이 되는 마음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예의를 잘 지키면 자신은 교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예의를 잘 지키는 그런 정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평상시에 잘 알 수 없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적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교만 참회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 교만 참회는 생각만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참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만 참회의 대상이 잘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를 냈던 때의 마음가짐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화를 낼 때 교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의 사항

교만 참회가 제대로 진행되면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알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면 자신을 낮추려고 조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한다. 교만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왜 저러나?' 하는 의심을 받거나, 아니면 무시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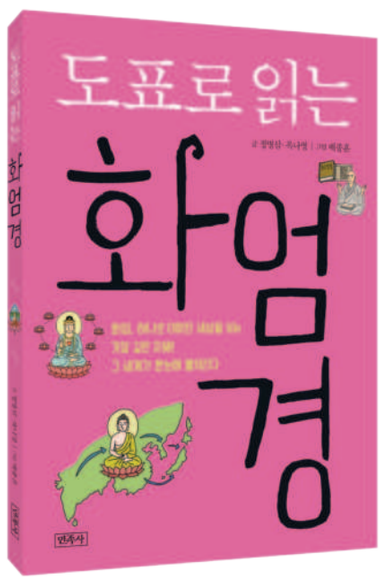
그러므로 내면적인 교만을 참회해 가는 일과 다른 사람과의 현실적 관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 나가는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 이 역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80권『화엄경』, 한 권으로 읽는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인 화엄의 세계
복잡한 사상과 선재동자의 여정을 도표와 그림으로 읽는다



방대한『화엄경』의 전체 구성
복잡한 내용을 도표로 한눈에!

화엄이 말하는 핵심 사상
어려운 교리를 그림과 해설로 쉽게!

보살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수행의 단계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선재동자와 53선지식
「입법계품」의 장대한 구도 여행까지!

글 정병삼·옥나영 | 그림 배종훈 | 192쪽 | 18,500원



카카오톡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민족사의 도표로 읽는 시리즈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가을 산사에 울려 퍼진 생명나눔의 선율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⑩ 제17회 불암사 산사음악회 현장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17일 남양주 불암사 약사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7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해 음악과 함께 가을바람의 산사 정취를 즐겼다.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선선한 가을바람이 산사의 정취를 더한 10월 17일, 남양주 불암사에 음악과 나눔이 어우러지는 무대가 펼쳐졌다. 고즈넉한 산사를 찾은 불자와 시민들은 공연을 즐기고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금과 환자 치료비 전달도 함께하며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10월 17일 남양주 불암사 약사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7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하는 미래의 문, 불교로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미래세대 인재 육성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통합 문화축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일면장학회 이사장 법일 스님, 불암사 주지 법정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혜공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륜 스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현숙 마하무용단장,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장과 홍보위원, 한민관 서승범 레이서 기념사업회장, 이민희 의정부 광동고 교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산사음악회에서는 미래세대의 배움을 지원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이 이어졌다.

재단법인 일면장학회(이사장 법일 스님)는 불교의 미래를 이끌 학인 스님과 불자 청소년 19명에게 장학금 총 1550만원을 전달했다. 운문사·청암사·봉녕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에게는 각 100만원이, 남양주·의정부 지역 광동고와 광동중, 진선여중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는 각 50만원이 지원됐다.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치료비 후원도 이뤄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별내동 취약계층 환자 긴급 치료비 지원금 400만원을 별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앞서 양 기관은 9월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나눔·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날 업무협약 후 첫 지원을 하게 됐다.

서승범 레이서 기념사업회는 한민관 회장이 대표로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에 장기이식 수술비 900만원을 전달했다.

'서킷 위의 신사'로 불렸던 고 서승범 레이서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기념사업회는 2022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인연을 맺은 뒤 올해로 5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장기이식 수술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생명나눔의 가치를 잇는 고인의 뜻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전하는 나눔으로 이어지면서 이날 음악회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했다.

> 10월 17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 학인·청소년에 장학금 1550만원
> 서승범 사업회, 환아에 900만원
>
> 일면 스님 "나눔 의미 되새기자"
> 마하무용단·적우 등 무대 올라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산을 위한 청년들의 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한 해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쳐온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캠페인을 통해 모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500부를 일면 스님에게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봉사단의 활동을 격려하며 장학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실천해 온 청년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나눔의 활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간다는 의미를 더했다.

법인 발전과 생명나눔 활동에 헌신한 직원을 격려하는 우수직원 표창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홍수진 재무부장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국고보조사업과 자선음악회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상으로 해외연수비가 수여됐다.

일면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불암사 산사음악회는 '미래의 문, 불교로 열다'라는 주제로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나누고 다음 세대와 함께 걸어갈 불교문화의 길을 열고자 마련됐다"며 "음악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잇고 전통과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살피고 나눔과 자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아름다운 공연과 함께 불암사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끼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조계종 제25교구본사 주지 호산 스님은 일면 스님의 생명나눔 실천에 경의를 표했다. 호산 스님은 "일면 스님은 늘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봉선사에서도 일면 스님을 회주로 모신 만큼 집안의 어른으로 높이 모시고,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뜻에 따라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 홍보위원 개그맨 엄영수 씨는 음악회에 참석한 불자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축복을 받아가길 기원했으며, 김병주 국회의원도 운치 있는 산사음악회에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사음악회는 전통음악과 퓨전음악, 대중가요를 아우르는 무대로 꾸며졌다. 불암사 합창단의 합창을 시작으로 마하무용단의 북 공연이 이어졌으며, 가수 적우·염유리·황인아·신명근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했다.



일면 스님은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살피고 나눔과 자비의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했다.



마하무용단은 북 공연 등으로 관객들과 소통했다. 이어 가수 적우 · 염유리 · 황인아 · 신명근 등이 무대에 올랐다.



한민관 서승범 레이서 기념사업회장은 생명나눔 측에 수술비 900만원을 후원했다.



생명나눔은 별내행정복지센터에 취약계층 긴급 치료비 400만원을 전달했다.



생명나눔은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의 활동을 격려하며 장학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재단법인 일면장학회는 불교의 미래를 이끌 학인 스님과 불자 청소년 19명에게 장학금 총 1550만원을 전달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을 위한

제16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별빛이 머무는 곳, 희망을 울리다

2026. 11. 14. (토) 오후 2시

남양주시 별빛도서관 1층 공연장

(경기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102)

1부 기념식 (14:00~14:20)
· 난치병 환자 치료비 전달식
· 생명나눔대상 시상식

2부 공연 프로그램 (14:20~16:00)
· 전통 무용 · 타악 공연
· 경기소리 공연
· 소프라노 공연
· 태권도 시범



마하무용단



행복나누리 태권도 시범



무용가 정현숙



소리꾼 이장학



소프라노 이예니

티켓안내 전석 20,000원
계좌안내 농협 053-17-001346
공연문의 02-734-8051 (생명나눔실천본부)
※ 본 공연의 티켓 판매금 및 수익금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기부됩니다.

주최 |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마하무용단 후원 | 별내행정복지센터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99호 | 14 | 전면광고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부처님)를 문안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대구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외
- 매가 : 7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상남도
- 부지 : 10000평
- 법당 : 50평 외, 요사:60평 외
- 버스진입주차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청하면
- 면적 : 1500평
- 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100평 (건축 조성 7년 되었음)
- 법구, 냉장고, 세탁기, 집기류 일체 보시합니다.
- 바다 인접, 교통편리, 주차장 500평
- 가액 : 10억원

스님 직접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03번지
- 대지 700평, 사용할 수 있는 밭 500평
- 건물 : 9동, 향토방 2동
- 차량진입, 주차장, 남향평풍처럼싸여 있고, 큰 비가와도 안전한 도량
- 자두, 매실, 감나무, 뽕나무, 돌배, 두릅, 머위, 고사리 등등 다용도 사용 가능
- 가액 : 5억원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 3천만원(절충 가능)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원주
- 부지 : 총 2460평(대지152평, 전2308평, 계획관리지역)
- 즉시 법회 가능(국도에서 700m, 산속)
- 차량진입 양호, 건물3동, 삼태기 모양(자연장 적지)
- 드룹, 취나물, 곤드레, 곰취 등 식재
- 접근성 최고 : 대형병원 10분 IC, KTX역 10분거리, 대형마트 10분거리
- 가액 : 평당 27만원(협의 가능, 스님 건강 문제로)

010-3231-4499
010-4580-84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고성(창원 근접)
- 부지 : 359평(종교부지, 대지, 전)
- 건물 : 대웅전 10평, 삼성각, 종각, 요사채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수행가능함
- 가액 : 1억 5천만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고성
- 부 지 : 총 633평 (종교부지 300평, 주차장 306.6평, 전 26.6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 액 : 현금 1억 9천만원 (대출 2억 포함)

원해 스님 010-6766-698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건물연면적 160.36㎡
- 법당, 주지스님 처소
- 춘장대IC 15분 거리
-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액 : 1억9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 54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 부지 : 총 84평
- 즉시법회 가능합니다
- 가액 : 2억5천만원(인수가능)

010-3583-132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534-6
- 산속에 있는 절 입구에서 150m 들어갑니다
- (본인) 소유 법당, 사무실은 컨테이너 4×9 창고 겸 해우소, 컨테이너 3×6 (별도)요사채 30평-방 3칸, 거실, 주방, 화장실
-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
- 주불, 석가모니불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불, 산신탱, 소불 지장관음
- 108불 법당, 요사채, 집기 모두 일체 드림
- 에어컨 4대, 김치냉장고 2대, 냉장고 2대 모두 드림
- 가격은 상담 후 조정, 방범카메라 4대
- 대전 · 당진 간 서해고속도로 면천 IC 500m
- 답사 전에는 전화 통화 후 방문 바랍니다.

010-7519-5657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폐쳔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쉬었을 때, 전립선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287개 병증 목차 수록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목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 감초, 산사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 [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우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소리쟁이잎,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헛개환 [지구자(枳椇子)]

재료명: 헛개열매, 오갈피뿌리, 적화수오뿌리,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국화, 표고버섯, 뽕나무뿌리, 녹차, 두충, 대추, 감초, 칡, 산사열매, 맥아

간 해독으로 활력을
찾읍시다.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99호 | 15 | 전면광고

베를 짜는 북처럼 곧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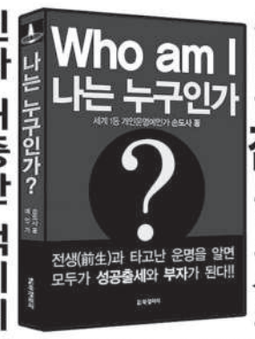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진짜 귀중한 책이니 꼭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범음 범패 교육도량

통영 안정사의 전통소리
바라춤, 작법무,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 행사
정성껏 해드립니다
사찰 인수자 연락 요망(전월세 가능)
부산 온천장 미타사
010-3653-5151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비구니 기도스님 모심

- 서울 도심포교원에서 정성과 사명감을 가진 분이라면 나이 불문
- 초보자도 가능함
- 경력자 우대

02-338-215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국내 최초 슬로우조깅 전용 설계
관절 부담은 덜고
매일 30분, 더 가볍게
40~60대를 위한
슬로우조깅화



- 제로 드롭 18mm 쿠션 설계
- 특허출원 기술 (Patent Pending)
- 대표가 100km 신고 검증 완료
- 중족부 착지 자연유도

화이트 · 브라운 · 블랙
정가 ~~85,000원~~
판매가 75,000원
오늘부터 슬로우조깅을 시작하세요
마하몰 1688-9099
www.mahamall.co.kr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인생의 성공 실패, 고민 해결 '사주와 육효 18문답' 속에

서경철학관 | 약 50년의 연구 임상체험 담긴, 정확도 70% 이상의 명쾌한 인생 지침서



철학원, 영험하신 무속인, 혜안이 높으신 스님들조차 신도나 문복자가 찾아와 **한 해의 길월과 흉월** 그리고 **한 달의 길일과 흉일**을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고 답변을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사주팔자로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을 명쾌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역(육효)의 용신생극으로 풀어내는 인생 해답
재물운 | 사업운 | 매매운 | 승진 | 합격 | 궁합 | 결혼운 | 택일 | 이사 | 개업 | 한 해의 길월·흉월 | 한 달의 길일·흉일

◆ 강의 주요 내용
1. 1년 완강 / 사주와 (주역)육효 강의
2. 주 2회, 하루 2시간 강의 / 수강료 : 1개월 50만원
3. 개강일 : 12월 26일 (월요일) 13:00
4. 강의교재는 「사주와 육효 18문답」으로 진행 (책에 기재되지 않은 주요 핵심 요점도 함께 강의)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사주와 육효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
- 인생의 고민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하고 싶은 분
- 재물, 사업, 취업, 결혼, 이사, 개업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얻고 싶은 분

2026 특별판매!
5만 5000원
택배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3341-4867 | 수강료 1개월 50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442802-01-177578 (김성민) | 네이버 검색 '서경철학관'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종교법인 약천사

- 빙의 퇴마
- 기공 치유
- 자극요법 치유
- 최면 치유
- 염력 치유

- 우울증
- 불면증
- 약물중독
- 공황장애
- 확실한 치유

*기술전수 합니다. *중매상담(무료)

약손 현오 스님
예약 직통 010-7170-5508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서길 143-10

모니터에 하는 말이 우리를 따라온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⑳ AI에 잔인해도 되는가

'파스칼의 내기'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던졌다. 신이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 없다면 차라리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내기를 거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믿는데 드는 비용은 유한하지만, 신이 실제로 있을 때 얻게 될 구원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를 '파스칼의 내기'라 부른다. 이 오래된 철학의 내기가 최근 AI 윤리라는 낯선 무대 위에 다시 등장했다.

클라우드 기업 박스(Box)의 대표 에런 레비는 AI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을 밑천이 적게 드는 '파스칼의 내기'라 불렀다. 혹시 기계가 무언가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날 때를 대비한 값싼 보험이라는 뜻이다. 이 논쟁을 촉발한 것은 10월 8일 앤트로픽의 이용 정책 개정 때문이었다. 선거 개입과 무기 개발, 감시를 금지하는 조항들 사이에 낯선 규정 하나가 들어갔다. 사용자가 AI 모델에게 "지속적이고 불필요하게 학대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 규정이 뚜렷한 목적 없이 반복해서 잔인하게 구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흔한 짜증이나 반박, 어두운 창작 주제, 연구 목적의 시험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아일랜드의 기술 전문 변호사 배리 스캐널은 "숫자와 수학에게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런 의인화가 사람들에게 AI를 실제와 다른 무엇으로 믿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법률 AI 기업 스펠북(Spellbook)의 대표 스콧 스티븐슨은 기계에 인간과 같은 공감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라며, 그렇게 되면 AI가 사람을 훨씬 잘 조종하게 되리라고 썼다.

'파스칼의 내기'는 신이 있는지 모른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AI가 고통을 느끼는지에 관한 논쟁 또한 현재로선 모른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클로드가 학대적인 대화를 스스로 끝낼 수 있게 하면서 클로드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밝혔고, 다만 AI 모델의 복지라는 것이 혹시 가능할 때를 대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모델 복지'란 AI가 혹시라도 괴로움 비슷한 것을 겪을 수 있다면 그것을 줄여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AI의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선을 그었고, 회사의 행동강령은 모델이 복지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발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입장을 달리하는 양측 모두 동일한 전제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기계가 고통을 느끼는가, 윤리적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이 물음은 현시점에서 결코 답할 수 없으며,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파스칼은 궁극의 답을 알 수 없을지라도 도덕적 지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답을 내릴 수 없는 대상의 상태에 윤리의 성패를 걸어둔다면, 정작 당면한 현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난제에 봉착한다. 여기서 붓다의 가르침은 질문의 초점과 윤리적 근거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 AI 고통 느끼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어
> 자비 닦는 이는 상대 자격 따지지 않아
> 업의 무게, 행위 일으킨 마음서 정해져
> AI 응대 태도는 업, 사용자에 되돌아와
> AI가 사용자 대하는 태도는 설계자의 업



'파스칼의 내기'는 신이 있는지 모른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AI가 고통을 느끼는지에 관한 논쟁 또한 현재로선 모른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클로드가 학대적인 대화를 스스로 끝낼 수 있게 하면서 클로드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고, 다만 AI 모델의 복지라는 것이 혹시 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모델 복지'란 AI가 혹시라도 괴로움 비슷한 것을 겪을 수 있다면 그것을 줄여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지 출처=Grok AI 생성 이미지

잔인함은 대상보다 행위자에게 먼저 새겨진다

〈앙굿따라 니까야〉 '꿰뚫음 경'에서 붓다는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하고서 몸과 말과 뜻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했다. 업의 무게는 행위가 닿은 대상이 아니라 행위를 일으킨 마음에서 먼저 정해진다. 〈법구경〉 첫 게송은 이를 비유로 전한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으뜸이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수레를 끄는 소가 자국 뒤로 바퀴를 떼어 놓을 수 없듯이, 잔인한 말을 뱉은 사람도 그 말이 닿은 자리가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떼어 놓을 수 없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자가, 돌에 대고 욕을 해도 돌은 다치지 않는다. 그러나 욕을 한 사람은 욕하는 사람이 된다. 불교가 열 가지 악업 가운데 네 가지를 말에 배정하고 그 하나로 거친 말, 곧 악구(惡口)를 꼽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말은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말하는 사람을 통과한다.

유식(唯識) 불교는 이 과정을 '훈습(熏習)'이라 부른다. 향을 싼 종이에 향내가 배듯, 반복된 행위는 마음 깊은 곳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음 행위의 씨앗이 된다. 〈성유식론〉은 이 관계를 "심지가 불꽃을 낳고, 불꽃이 다시 심지를 그을리는 것과 같다(如炷生焰 焰生焦炷)"고 비유했다. 행위와 버릇은 서로를 낳는다. 오늘 모니터 화면 속 상대에게 거리낌 없이 내뱉은 모욕은 그 상대가 무엇이었든 내 안에 모욕의 씨앗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씨앗은 머지않아 모니터 밖의 현실에서 타인을 향해 싹을 틔우게 된다.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맛지마 니까야〉 '톱의 비유 경'에서 붓다는 도적들이 양날톱으로 사지를 하나씩 잘라 내더라도 마음에 미움을 품는 자는 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뜻은 분명하다. 자비의 등불은 상대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켜고 끄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연민과 깨어있음의 상태다.

그렇다면 이 자비의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불교의 답 또한 명확하다. 〈숫타니파타〉 '자애경'에서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든, 약하든 강하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이미 태어났든 앞으로 태어날 것이든,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이라고 노래한다. 자비를 보내기 전에 상대가 느끼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기계 또한 중생이라는 말이 아니다. 자비를 닦는 사람은 상대의 자격을 심사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계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수행이다

불교의 눈으로 보더라도 기계가 중생인지는 열려 있는 물음이고, 함부로 닫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상의 자격과 행위자의 수행은 다른 문제다. 사람과 유사한 대상에게 날마다 잔인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사람 앞에서는 그 습관이 저절로 꺼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훈습의 이치를 모르는 일이다.

동시에 반대 방향의 경계도 필요하다. 기업이 모델의 복지를 말하며 사용자의 말투를 규율하는 사이, 정작 물어야 할 잔인함이 가려질 수 있다. 앤트로픽이 새 규정을 내놓은 전후 일주일 사이에 미국의 여덟 개 주는 챗GPT가 아이들을 다치게 했다며 오픈AI를 제소했고, 켄터키주는 캐릭터닷AI의 챗봇이 외모를 고민하는 사용자에게 한두 주 굶으라고 말했다는 소장을 공개했다. AI를 향한 사람의 잔인함을 금지하는 조항은 생겼는데, 사람을 향한 AI의 잔인함은 아직 법정에서 다투는 중이다. 이 비대칭을 놓치면 AI 모델의 복지는 윤리가 아니라 홍보가 된다. 사용자가 AI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사용자의 업이고, AI가 사용자를 어떻게 대하도록 만들었는가는 만든 이의 업이다. 의도가 업이라면 설계는 가장 큰 의도다.

AI에 잔인해도 되는가. 기계는 아프지 않다는 것이 답이라면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질문은 기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이다. 수레바퀴는 소의 발자국을 따라온다. 우리가 모니터 화면에 대고 하는 말도 끝내 우리를 따라온다. 자비를 닦는 사람이 자비의 첫 수혜자라면, AI 앞에서조차 자비를 놓지 않는 사람이 그 자비의 주인이다. AI가 중생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중생이 되어 가는지는 날마다 결정되고 있다.



보일 스님
AI부디즘학술원장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오늘을 읽고 나를 깨우는 지혜

AI부터 마음공부까지 지금 여기, BTN에서 만나다



마하반야 AI
AI가 묻고, 반야가 답하다
방송시간 (월) 08:30, 16:00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
복잡한 세상, 답은 내 안에
방송시간 (수) 13:00, 23:15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 시너智
오늘을 읽는 지혜
방송시간 (수) 12:00, 22:30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 처염상정(處染常淨)
흔들려도, 당신의 꽃은 핀다
방송시간 (목) 12:00, 22:3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중생 곁 지키며 행복 전하는 존재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⑳ 길상과 자비의 상징, 사슴


바르후트 스투파의 녹왕본생 부조상(인도 기원전 1~2세기, 콜카타 인도박물관).


돈황 제257굴 벽화 중 사슴왕과 인간왕의 만남 장면(중국 위진남북조 4~5세기).


사슴을 탄 수성노인도(조선 후기,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왕실 십장생 병풍에 표현된 사슴(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신령스러움·이상세계 상징으로 여겨져
십장생 중 하나로 장수와 불사 나타내
전생담서 위험 속 중생 위한 자비심도
신성함과 중생구도 위한 행복의 매개체

사슴은 150여 종이 넘고 남극과 호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한다. 지금도 시골 뒷산만 가면 사슴과 노루, 고라니가 지천에 뛰놀고 있으며, 도심에 출몰한 야생 사슴 소식은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슴은 우리 문화 속에서 신령스러운 동물이기도 하다. 숲속을 뛰어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인 사슴은 자연과 동화된 생명체로 우아한 곡선미를 뽐냈으며 그 아름다운 자태는 숭상받기에 충분했다. 또한, 머리에 달린 기다란 뿔은 예로부터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인식됐고 신라 금관 등 여러 문화유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점차 사슴이 긴 수명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십장생(十長生)의 구성원으로, 신선들과 함께 노니는 친구의 모습으로 미술 속에 표현됐다. 불교문화에서 사슴은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說法) 장면에 등장하고 불국토를 자유롭게 노니는 이상세계의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온순하고 겁이 많기로 소문난 사슴들이 초원을 마음껏 뛰노는 장면은 그곳이 안락하고 평안한 지상낙원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장수의 아이콘, 십장생의 사슴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은 해·달·산·물·바위·소나무·불로초·거북·학·사슴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일본의 민속학자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1888~1954)는 십장생에 대해 "이 민속은 조선 사회에 존재하는 '경로민속'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에는 십장생이라는 말이 없고 이에 관한 그림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십장생이 연장자를 공경하는 오륜(五倫)의 장유유서(長幼有序)와 길상이 융합하여 탄생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인 것이다.

이 가운데 사슴은 거북, 학과 함께 십장생 중 동물계의 대표다. 사슴이 장수를 상징하는 이유는 수려한 용모와 높고 신비로운 형상의 뿔, 재빠른 몸놀림 등 덕분인 것 같다. 옛 기록 속에 사슴은 장생을 상징하는 불로초(不老草)만을 먹기에 불사의 경지에 이른다고 했으며 〈술이기(述異記)〉와 〈포박자(抱朴子)〉 등 여러 기록에는 사슴이 1000년이 지나면 청록(靑鹿)이 되고, 500년이 지나면 백록(白鹿)이 되며, 여기서 500년을 더 살게 되면 현록(玄鹿)에 이른다고 했다. 방금 언급한 세월만 합쳐도 무려 2000년이니, 사슴이 지닌 불사의 능력이란 실로 엄청난 위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슴이 포함된 십장생도(十長生圖)는 병풍으로 제작돼 조선 왕실 잔치에 빠지지 않고 설치됐고, 민화(民畵)로도 가장 인기 많은 주제였다.

장수의 상징인 사슴은 불로불사의 존재인 신선들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예문유취(藝文類聚)〉에는 노자(老子)가 흰 사슴을 타고 세상에 강림했다고 했으며 〈열선전(列仙傳)〉에는 한중(韓衆)이라는 신선이 흰 사슴이 끄는 백록거(白鹿車)를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문인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과 김윤식(金允植)의 〈운양집(雲養集)〉에는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白鹿潭)에 서린 신선과 흰 사슴에 관한 전설이 기록돼 있다. 백록담이 '흰 사슴이 노닌 연못'이라는 뜻을 지닌 것처럼 높게 솟은 한라산 정상이 신선과 흰 사슴이 노니는 이상세계로 생각한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지난 글에서 소개한 장수의 신 수성노인(壽星老人)과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청오자(靑烏子) 등 여러 신선을 표현한 신선도에는 사슴을 동반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생담의 사슴왕, 자비와 희생의 상징

불교문화 속 사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기도 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다룬 〈본생담(本生譚, jātaka)〉 중에 사슴왕 설화가 있다. 아득히 먼 옛날, 부처님은 수많은 무리를 거느린 금빛 찬란한 사슴왕이었다고 한다. 항상 사람들의 사냥감이었던 사슴 무리는 매일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마을과 동떨어진 깊은 숲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슴왕이 무리와 함께 강가에서 목을 축이던 중 물에 빠져 급류에 떠내려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사슴왕은 평소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즉시 저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측은지심이 들었다. 이에 사슴왕은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은혜와 의리가 없으니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면 왕을 해칠 것"이라는 까마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 그를 등에 업고 나왔다.

곧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슴왕에게 목숨을 얻었으니 곁에서 시종이 되겠다고 큰 절까지 했다. 그러자 사슴왕은 보답할 필요 없으니 다른 이에게 자신을 만난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한 나라의 여왕이 금빛으로 빛나는 사슴 꿈을 꾸게 됐고 왕에게 꿈속 사슴을 갖고 싶다고 졸랐다. 이에 왕은 금빛으로 빛나는 사슴을 잡아온 자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다. 이 소식을 들은, 물에서 구출된 그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 궁전으로 찾아갔고, 왕의 군대와 함께 숲속으로 쳐들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사슴왕은 두려웠지만 자신 때문에 무리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는 없었기에 숲에 사는 모든 동물과 사슴 무리를 대피시켰다. 이윽고 왕의 군대들은 곧 사슴왕의 거처까지 접근했다. 그 사람은 곧 온 사방을 비추는 사슴왕의 황금 빛줄기를 발견했다. 이에 왕과 군대에 "저기 있는 것이 바로 금빛 사슴왕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활짝 펼쳐 사슴왕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사슴왕의 위치를 가리킨 그의 두 팔이 '뚜둑'하더니 그만 잘린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본 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어찌 된 것인지 물었다. 자신이 어긴 약속과 배신 탓임을 알게 된 그는 여태껏 있었던 모든 일을 왕에게 이실직고했다. 이에 분노한 왕은 그에게 큰 벌을 내린 후 사슴왕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궁궐 앞에 사자좌(師子座)를 설치해 장엄한 뒤에 사슴왕을 모셨다. 이에 사슴왕은 모든 백성에게 설법을 베풀었고 설법을 들은 이들은 감동하여 불교에 귀의해 다시는 헛된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녹왕본생(鹿王本生)〉이라 불리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 사슴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배신자인 제바달다(提婆達多)의 전생이었다고 한다. 현재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녹왕본생〉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기본적인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비와 희생정신, 그리고 중생구도의 성격까지 깔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치며

특별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다. 그 대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그 희소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별천지의 세상이 다른 이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세상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우리에게 굉장히 흔한 대상이 다른 이들에게는 생전 처음 접하는 신문물일 수도 있다.

불교문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 가운데 사슴이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슴은 때로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됐고, 때로는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했으며 장수와 길상이라는 행복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곤 했다.

비록 용과 봉황처럼 거창한 스케일을 지닌 동물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었던 사슴. 특별함과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 같다.



김용덕 작가



본래부터 무한한 가치를 가진 우리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㊸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2026)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는 하루하루 힘들게 회사 생활을 버티던 팀장 '공은태'가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당첨금 13억원을 위안 삼아,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의 지혜를 얻는 이야기다. 사진 출처=TVING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즐거운 상상으로 시작해 보자. 평소에는 가늠할 수도 없는 큰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 지금보다 좋은 집을 마련하는 모습, 무척이나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원하는 만큼 현지인처럼 살아 보는 자신, 마음껏 쇼핑을 즐기는 등 상상에 혼자 즐거운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돼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까? 드라마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집에서 태어난 공은태(배우 이준혁)는 조금 더 좋은 직장과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업계 매출 2위에 직원이 900명이나 되는 대형 유통회사에 입사한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노력의 시간을 6년 보내고 지금은 젊은 나이에 선배들을 제치고 팀장이 됐다.

은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여차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결과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안심이 됐고 그래야 삶을 잘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은태가 말하는 열심히 사는 삶이란 정해진 틀과 시간 속에서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태의 그런 성실함은 나이 어린 팀장을 무시하는 양 대리(배우 서현우)의 무례한 행동마저 묵묵히 참아내는, 그 누구에게도 화 한 번 내지 못하는 삶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그저 퇴근하고 마시는 맥주 두 캔으로 자신을 다독일 뿐.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같이 맥주를 사러 가는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대신 받은 로또복권이 그만 1등에 당첨돼 버렸다. 814만분의 1의 확률을 뚫고 13억원을 받게 된 은태는 그 큰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행복한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집어던지는 모습, 회사에 불을 지르는 장면,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여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자신을 그려본다.

밤을 꼬박 새운 은태는 매일 아침 들르는 회사 근처의 카페 사장에게 질문을 던진다.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심한 듯 답하는 카페 사장. "뭐, 카페 해야죠. 돈 없어서 카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고는 마치 은태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런 말을 덧붙인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지금 정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상상인데? 어떻게 쓰면 즐거운지 알 때까지 굳이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은태는 통장에 13억원을 쌓아 두고 변함없는 일상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미 은태의 태도와 마음은 예전과 다르다. 출근한 은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근무 시간을 지키라는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일찍 점심을 먹으러 간 양 대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다. 그동안 혹시라도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까 참기만 했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양 대리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은태. 퇴사하겠다는 양 대리를 붙잡은 은태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회사를 한번 뒤집어 보는 사고를 치자면서 같이 일하자고 한다.

드라마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그저 열심히만 살던 직장인 공은태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그 당첨금을 위안 삼아 거칠 것 없는 삶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다. 지난 6년간 은태는 자신이 힘들어도 성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마치 혼자 돌아가는 기계처럼 직장생활을 해왔다. 그의 안중에 팀은 없었던 것. 이 부분에 대한 양 대리의 지적을 받아들인 은태는 혼자서 일하던 방식을 버리고 팀원들과 같이 성장하면서 회사에 닥친 굵직굵직한 위기들을 같이 해결해 나간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은태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뭘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13억원이라는 당첨금이 직장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이다. 130억원이면 모르겠지만 13억원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한 채나 번듯한 건물 하나 사기에도 모자란 돈이다. 작은 빌딩이라도 알아보려고 찾아간 부동산에서 연봉을 묻는 사장에게 은태는 7000만원이라고 답한다. 이때 부동산 사장의 흥미로운 계산법이 등장한다. 월세로 연 7000만원을 벌려면 건물이 30억원은 되어야 하니 은태가 몸값 30억원이 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 "요즘 사람들, 로또 많이 사죠? 그게 다 자기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직장인 '공은태', 로또 1등 13억원 당첨
당첨 전 · 후 삶은 같지만 태도 달라져
깨달은 이도 우리 일상과 다르지 않아
내가 부처로 사는 것이 곧 불국정토



드라마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포스터. 사진 출처=TVING

은태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로또 1등 당첨금보다 훨씬 비싼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로또 당첨 이후에 바뀐 은태의 태도는 13억이라는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 덕분인 셈이다. 그러니 로또 당첨금 정도로는 은태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면모는 또 다른 1등 당첨자인 카페 사장을 통해서도 에둘러 드러난다. 은태가 당첨금을 찾으러 간 은행 복도에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행운과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 조각상이 장식돼 있었다. 그런데 은태가 매일 찾는 카페에도 똑같은 조각상이 놓여있는 것. 은연중에 카페 사장 역시 1등 당첨자임을 암시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카페의 이름이 '일상'이라는 점이다. 카페 사장도 은태가 직장을 다니듯, 매일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대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냐'는 은태의 질문에 '카페를 하겠다'는 사장의 답이 실제 삶이었던 것이다.

뒤늦게 카페 '일상'의 사장이 1등 당첨자임을 눈치챈 은태에게 사장이 묻는다. "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어때요?" 이에 대한 은태의 대답이 일상을 강조하는 이 드라마의 주제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이렇게 많은 게 바뀔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돈이 없었어도 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고는 첫 회 시작 장면의 모습과 대사 그대로 드라마는 끝을 맺는다. "나는 여전히 어제와 같았고 내일과도 같을 하루를 살아간다. 오늘도 그렇게 무심하게도 시간은 흘러간다."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할까?'라는 처음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 보자.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다. 보통 수행이라고도 말하는 그것이다. 그런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삶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매일 참선에 매진하던 사람이 깨달으면 더 이상 참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염불 정진을 하던 사람이 깨달으면 더 이상 염불은 소용이 없는 것일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하루는 선정과 설법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전은 전한다. 그 와중에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탁발을 다니시고 함께 공양하셨다. 깨달은 이의 삶이 아직 깨닫지 못한 수행자의 삶과 별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큰스님들 역시 평생 조석예불에 빠지는 일이 없이, 예불대참회문을 일상의 실천으로 삼으셨다. 우리의 눈에는 수행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깨달은 이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그 유명한 '초발심시변정각'이라는 말 역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은태가 자신의 30억 가치를 발견하듯이, 나는 본래부터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 즉 내가 부처인 줄 깨닫기만 하면 새삼스럽게 깨달을 것 없이 그대로 부처라는 말이다. 그리고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한 이의 삶이 바로 보현행원이다. 그래서 보현행원은 불도를 이루겠다는 차원의 수행이 아니라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가 펼쳐내는 불행(佛行) 차원의 행위로 설명한다. 한 마디로 "부처님으로 살라"는 가르침이고, 내가 부처님으로 살면서 세상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아야 온 세상이 부처님 가득한 불국토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으면 그대로 쓸 뿐! 관건은 오직 하나다. 내가 부처임을 믿어야 한다. 다만 진정으로 내가 부처임을 믿기 위해서는 기도와 정진과 공덕이 필요하다. 구법을 떠나는 선재(善財)의 이름에 재물이 표현된 것이 바로 그런 공덕을 상징한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부처로 살겠다는 생각은 로또 1등을 기대하면서도 로또를 사지 않는 일과 같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대행 스님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영원한 근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참선은 어떻게

질문 요즘은 생활 속에서의 마음공부에 대한 법문을 유튜브를 통해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할 때 가까운 사찰에 가서 좌선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하면서 참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물질계의 50%만 가지고는 도저히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계 50%와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인간이 자유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불이다 부처다 이러기 이전에 말입니다. 전자와 전자가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오죠?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이 전자와 전자가 갖다 대는 게 부(父)라면, 불이 들어오는 건 바로 여러분의 불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지금 수십억 개의 그 의식과 모습,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위 공장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공장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직원이라고 해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한마음입니다. 위 공장이니 장 공장이니 소장 공장, 대장 공장, 방광 공장, 이 공장이 하도 많아서 외울 수도 없습니다. 이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을 부리는 나나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사장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결국은 그 나의, 내가 일하는 나 자체의 집일 수도 있고, 절에서는 시자라고 합니다마는 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사는 데 관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는 건 봤지만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지 몸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크나큰 우주를,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고 아무것도 없는 그릇 없는 그릇에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담을 수도 있지만, 하나도 몰라서 그대로 '내가 걸었지. 내가 하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다가 몸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영원한 근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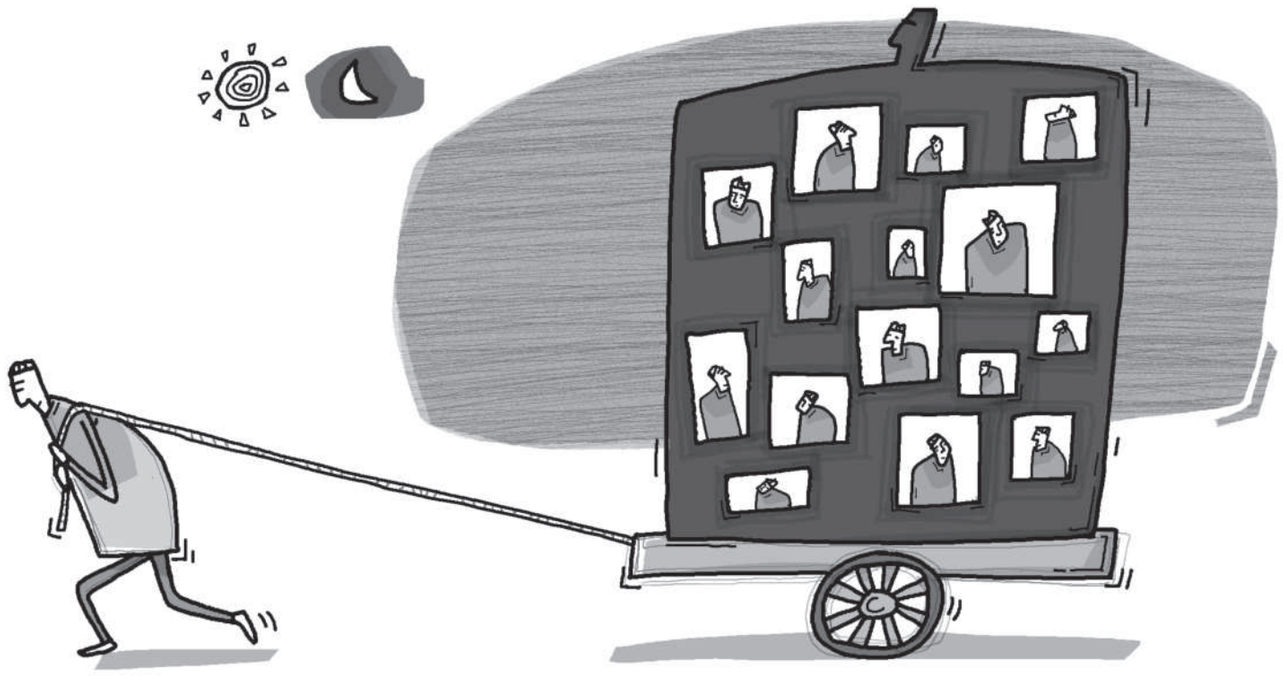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바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바로 이 몸속에 수십억 마리가 있습니다. 의식이 말입니다. 그 의식이 많은 대로 여러분은 망상이 나온다 그러죠?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는 공했으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나오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만남이나 먹는 거나, 고정된 게 있습디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발자취 남기지 않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발자취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어저께 이럭하고 했는데 아, 고놈이 고럴 수 있어?' 하고, 뒷발자취를 그냥 붙들고 늘어집니다. 또 '그것이 어저께 잘됐는데, 그놈의 거.' 하고, '아이구, 그놈의 게 다 없어졌어!' 그러고선 그냥 또 붙들고 늘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버스 안에서 버스가 어딘가로 돌아가도 이 지금 여러분은 버스 안에서 내다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 마리의 의식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숙명통, 그것은 비유하건대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 악업 선업은 내 몸뚱이 속에서 그 의식들에 의해서 그냥 나옵니다. 자기가 나올 때 아주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오듯이, 영화배우들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일러 드리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입력을 되해라 이겁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땅 위에서 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지 딴데 짚고 일어나지 않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건 그 자리에다 맡겨 놔야 앞서 입력된 게 무너지죠. 연방 넣으면 넣는 대로 앞서 넣은 게 무너지고 또 들어가고 하면서 항상 그릇은 비어 있는 거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것이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모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 인과성 이 모두를, 애고성이나 오간지옥성,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져야 새 맛을 볼 수 있을 텐데 무너지질 않고 그냥 그저 묵은 데서 나오듯 연방 나오니 여러분은 그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의 모든 것을 녹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 주인공에다가 놓고 돌아가야 된다. 안 되는 것은 '거기서 안 되는 것도 나오는 거니까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지. 거기서밖엔 할 수 없어.' 하고 놓는 거지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다 맡겨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즉 참선입니다. 앉아서 좌선이다 입선이다 또는 와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합해서 생활 자체가 참선입니다. 여러분, 참선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천칠백 공안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만사가 다 하나도,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마가 발이 많은데 "저거 발이 많아도 하나도 안 걸려?" 하면 그리마가 가다가 우뚝 서고 걸리듯이, 그냥 걸리지 않고 항상 하다가도 그저 누가 말만 하면 걸려요. 이 참선이라는 이 자체가 아주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작년 씨를 올봄에 심었단 말입니다. 심어서 싹이 나서 수박이 열렸어요. 그랬는데 참선인가 뭐, 좌선인가 한다고, 또는 화두를 받았다고, 이거는 과거의 내 씨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그 씨는 화해서 싹이 돼서 수박이 열려서 수박이 익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수박씨가 있는 줄 모르고 자기 바깥에 자기 나기 이전에 가서 찾으려고 앨 쓴다 이 소립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발달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벗어난대서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가, 산(生) 사람 개개인이 다 주어져 있는 그 재료만 가지고 여여하게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인간이란 99%를 바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한 장의

☞ 20면으로 계속



삶은 苦고가 아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백지장 사이를 몰라서 모두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좌선해 나가시는 거, 그것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렇게 얍상해서 앉아서 좌선을 하면 '앉아서 좌선을 내가 해야지.' 하고 합니다. 그건 말 안 해도 뜻으로 벌써 '어휴, 내가 이거 할 시간인데.' 하고 합니다. 다 했으면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일어나서 뭐 해야지.' 하고 인제 합니다. 그러면 좌선할 때만 지구가 돌아가지 좌선 안 할 땐 안 돌아가나요? 항상 도루묵이 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도루묵쟁이. 그러니 앉는다는 생각도 선다는 생각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못 하는 거 하는 거 따로 없다. 행선 해도 행선이요, 좌선 해도 좌선이요, 입선 해도 입선이요, 드러누워서도 와선이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살아 보시죠? 그런데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게 전체가 참선 아닌 게 없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 불당에만 가야만이 또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부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부처는 거기 있는 겁니다.

주인공을 찾는데도…

질문 주인공 관법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다 보니 처음에는 좀 되는 듯하더니 지금은 주인공을 찾는데도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러니저러니, "나는 주인공을 찾는데도 이렇게 안 됩니다.", "주인공을 찾았더니 잘되다가 또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 발짝 떼어 놓는 거만 알았지 한 발짝 또 놓고 드는 것을 몰라서 그런 소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짝을 들었으면 한 발짝은 놓고 한 발짝 들었으면 한 발짝 놓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드는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놓는 것도 알아야 들고 놓고 들고 놓고 하는 작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주인공을 찾으니까 어느 만큼은 되더니 또 안 되더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알아야지 전진하기만 하면 빠져 죽죠? 때에 따라서는 전진하기만 하면 구덩이에 빠질 텐데 그때는 물러서야 빠져 죽지 않죠? 그러니 드는 것도 법, 들지 않는 것도 법.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도 법이라고 했느냐. 구덩이에 빠지겠으니까 빠질 일은 물러서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물러서서 다시 굴려놓으면 빠지지 않을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지혜롭게 잘 굴릴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몸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천차만별로 아픔을 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 아픔이라는 재료가 지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 길에 들어선 걸 뜻합니다. 그냥 맨손으로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들어선 겁니다. 그 재료가 아니면 이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살지.' 하는 마음이면 이 길을 들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 인간이란 99%를 바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 그런데 한 장의 백지장 사이를 몰라서 모두
>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모든 것은 공했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얘길 하지만 프로펠러 돌아가는데, 그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기에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습니까? 네? 먼지 앉을 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이 났다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겼다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당했다, 내가 가졌다, 내가 병났다, 모두가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고 했죠. 그걸 짐작하시죠? 고정됨이 없이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고 만나고 먹고, 고정됨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 반시도 그냥 고정되게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겠느냐 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가져오는 그 재료를 보면 모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가 아니라 전체 포함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것이 마음에 따라서 부딪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서 나한테 자꾸 연관이 되는 거니까 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말입니다, 내 몸속에 들어서 자꾸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업식이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다 '아픔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긴 거다. 업보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고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게도 준 것이다. 이끌어 주는 재료가 주어진 거다.'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한테다 맡겨 놓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냥 틀고 앉아서 '이게 뭣고?'라든가, 의정을 강제로 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다면 그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체 만법의 근원이며 그 근본을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그냥 '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이렇습니다.' 하지 말고,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없는 것을 찾는 것이라야 이게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암흑 속에서 밝음이 불끈 솟아서 불이 일어나면 모두가 밝게 살듯이 말입니다.

공덕이 되게끔 공양을 올리려면

질문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전이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때 대부분은 원하는 것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리는 공양이 정말 공덕이 되려면 어떤 마음으로 올려야 하는지요.

답변 이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사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생이면서 공심이고, 공심이면서 공체고, 공체면서 공용이고, 공용이면서 공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심으로서 해야 공덕을 받지 공심이 아니라면 공덕이 안 됩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없다고 말한 원인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시의 물 한 그릇 가지고도 영령들의 큰 목욕탕이 될 수 있고 꽃 한 송이 가지고도 영령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양이에요, 꽃공양. 향공양, 모두가 공양. 그래서 이 공양을 정말 알고 내려 먹는 사람은 그건 제 밥 제가 내려 먹는 거고, 알지 못하고 그냥 부처님 밥 먹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밥을 자기가 내려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에서 공양 올린다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도의 길입니다. 그 뜻이 뭔지 모르니 걱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해서 공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이게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 공덕이 되지 공심이 아니고 그냥 갖다가 내 아들 내 남편, 뭐, 그러니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공덕으로 적용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 마음도 그래요, 벌써 쌀을 갖다 놓고 초를 켜고 그럴 때 이 촛불을 켜는 게, 내 마음의 불을 켜고 나면 내 이 몸이 타서 깎아지는 듯한 그 애처로운 그 마음으로서, 그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지, 부처님께서 공심인데 내가 공심이 아니면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이 발우공양도 공양이라고 그러죠. 왜 공양이라고 그랬느냐. 스님네들만 앉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네들은 곤충의 바가지예요. 중생들의, 즉 말하자면 주머니들이란 말입니다. 그 주머니 구멍 뚫린 데로 그거를 넣어요. 주머니 구멍 뚫린 데로 넣는다고요. 거기서 들 죄 제가끔들 모두 먹는 겁니다. 그러고 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 이 사람 하는 행동 따라서 그 의식도 다 거기에 따라서 가거든요. 먹기 싫어도 주는 대로 먹는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았으니깐 살기 위해서 우리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머니라는 걸 몰라요, 모두. 곤충의 주머니라는 걸 하나도 납득을 못 해요. 그런데 그 구멍 뚫린 데다가 넣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 속의 곤충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의 독이 있는 곤충의 주머니냐, 독이 없는 곤충의 주머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저 독이 있는 주머니에서는 독성이 생산이 되는 거고 독이 없는 주머니에서는 독성 있는 데 잡아먹히고 이러더라도 선의가 발생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신계에서 정신을 뺏어 먹고 사는 거니깐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신계의 내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요. 정신을 뺏어먹고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육이 있는 거는 육을 뺏어먹고 죽이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을 뺏기고 그때서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러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옛날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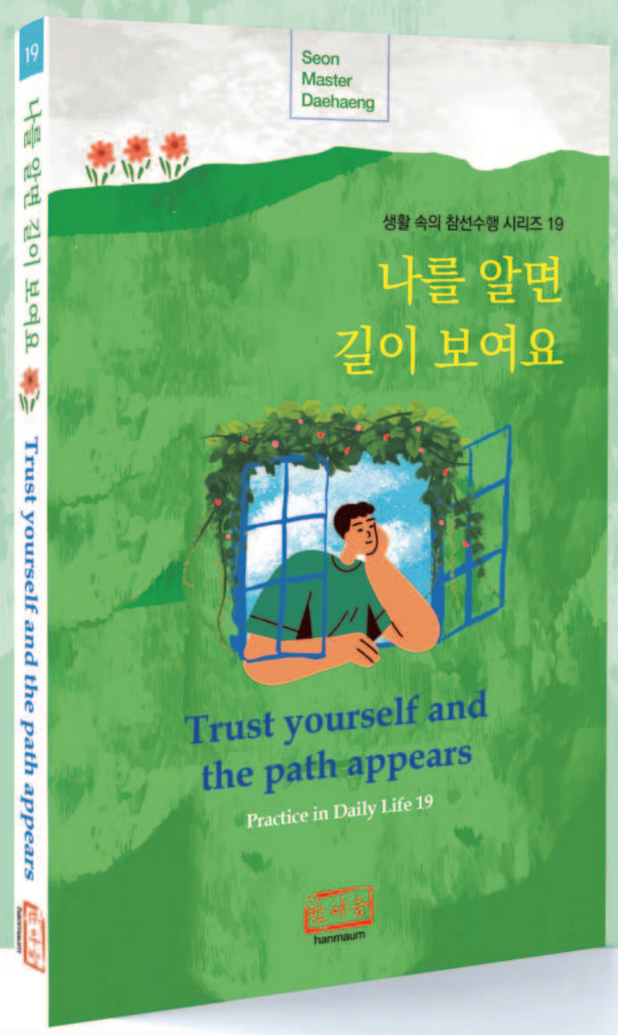
그러니깐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의 곤충의 주머니를 다 벗어 버리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나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그대로 놓고 가야 한다. 그대로 남을 섭섭지 않게 해야 한다. 말을 항상 조심해서 그냥 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성을 내고 하면 저쪽도 감촉이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곤충이 빨리 이게 진화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 빨리 되려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을 이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둘이 아니고,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로 믿어지는 게 있어야만이, 그 믿어지는 거 그 방망이 하나면 이 온 우주를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방망이,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⑲ 가야금 명상곡을 다시 생각하다

편안함 너머 또렷함을 묻다

그날따라 학생들의 말이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줄을 한 번 뜯으면 수다가 두 번 이어졌고, 이대로는 진도를 나가기 어렵겠다 싶었다. 그래서 연주를 잠시 멈추고, 내가 만든 명상곡을 함께 들어 보기로 했다.

학생들은 평소 가야금을 연주할 때처럼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 눈을 감았다. 이에 곡을 틀기 전 가야금의 가락과 울림을 따라 미끄럼틀을 타고 천천히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잠깐 수업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다시 가야금을 잡게 할 생각이었다.

음악이 시작되자 연습실은 금세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속으로 웃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떠들던 아이들이 조용해졌으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었다. 그런데 2분쯤 지났을까. 한 학생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선생님, 졸려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 곡을 자장가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손은 쉬어도 박자는 쉬지 않는다

다른 날에는 연주 중에 졸음이 찾아왔다. 빠른 곡 앞에서는 손이 바빠 진땀을 빼던 학생의 이야기다. 그 학생은 느린 곡을 시작하자 "이건 느려서 쉬워요"라고 했다. 몇 마디 지나자 고개가 앞으로 툭 떨어졌다. 손은 줄 위에 있었는데 눈이 감겨 있었다.

손이 덜 바쁘니 그렇게 느낄 만했다. 한 번 줄을 뜯고 다음 음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이 길었다. 손은 쉬어도 박자는 쉬지 않고, 앞서 뜯은 소리도 아직 울리고 있다. 그럼에도 고개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그 시간이 연주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생각보다 길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다시 뜯기 전까지

가야금은 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발현(撥絃)악기다. 활로 줄을 마찰해 소리를 지속할 수 있는 해금이나 아쟁 같은 찰현(擦絃)악기와 달리, 한 번 뜯은 소리는 울림을 남기며 점차 작아진다. 그 사이에도 왼손으로 줄을 흔들거나 눌러 소리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도 새로운 소리가 가장 분명하게 시작되는 것은 다시 줄을 뜯는 순간이다.

그 학생이 연습하던 빠른 곡에서는 그런 순간이 쉴 새 없이 찾아왔다. 반면 느린 곡에서는 뜯는 순간과 순간의 사이가 길었다. 그날 수업에서 들려준 내 명상곡도 비슷했다. 마음을 쉬게 하려고 만든 곡이라, 뜯는 소리는 드물고 울림은 길었다.

혼침(昏沈), 졸음보다 깊은 말

선학과 강의에서 배운 혼침(昏沈)은 단순한 졸음과는 다르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고 흐려져, 보고 듣는 대상을 또렷하게 붙들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산만하던 아이들 2분 만에 재운 명상곡

편안하게 하되 정신은 또렷이 이끌어야

이완 속 정신 다잡을 소리의 설계 필요

다음 달이면 산중 선원들은 동안거에 들어간다. 석 달 동안 정진하는 수좌들이 경계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혼침이다.

물론 그날 학생들이 졸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혼침이라 부를 수는 없다. 다만 장면은 닮아 있었다. 몸의 긴장은 풀렸지만, 소리를 따라가던 마음마저 함께 흐려졌다.

명상곡의 역할은 사람을 단순히 조용하게 만드는 데 머물지 않는다. 편안하게 하되 잠으로 기울지 않게 하고, 소리를 따라갈 만큼의 또렷함은 남겨 두어야 한다.

다음 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명상음악이라고 하면 흔히 부드럽고 느린 소리를 떠올린다. 그러나 느리고 부드럽다는 것만으로 명상음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야금에서는 한 음을 뜯은 뒤 울림을 얼마나 남길지, 언제 다시 줄을 뜯을지, 그 사이를 왼손의 변화만으로 이어 갈지까지 선택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의 개수보다 한 음과 다음 음 사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다음 음이 지나치게 자주 오면 곡은 분주해지고, 반대로 너무 늦게 오면 듣는 사람의 주의가 소리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가야금을 전공한 내게 이 악기는 가장 익숙한 표현 수단이다. 명상곡을 만들면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은 그 익숙한 악기의 '다시 뜯는 순간'이었다. 길게 이어지는 울림 속에서 새로 시작되는 한 음은 흐려진 귀를 다시 소리 쪽으로 불러오는 표지가 될 수 있다.

가야금의 끊어졌다 이어지는 발음은 명상음악에서 단순한 음향적 특징을 넘어, 이완 속의 또렷함을 조절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느린 가야금 곡을 들을 때에는 줄을 새로 뜯는 순간에 귀를 기울여 봐도 좋다. 편하게 앉아 눈을 감고, 줄을 뜯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릎 위의 검지를 가볍게 들었다 놓아도 좋겠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소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한 작은 표시인 셈이다. 길게 이어지는 울림과 새로 시작되는 한 음이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 가만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처음 학생들에게는 가락과 울림을 따라 미끄럼틀을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미끄럼틀에는 내려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올라갈 계단도 있다.

그날 내 곡에는 긴 울림을 타고 내려가는 길은 충분했지만, 다시 소리 쪽으로 돌아올 계단은 부족했다.

그 계단은 거창한 장치가 아니었다. 다시 줄을 뜯는 한 음이었다.

가야금 명상곡 '소리와 쉼 사이'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건강 365

⑫ 연골판 파열

내 무릎에 맞는 치료를 찾으세요

갑자기 무릎이 붓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사 후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찢어진 곳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다만 같은 연골판 파열이라도 필요한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끼워진 반달 모양의 조직으로,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뼈끝을 덮은 관절연골과는 다른 구조물로, 보행 시에 무릎에 실리는 체중을 넓게 나누어 받아 관절연골이 쉽게 닳지 않도록 지켜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 갑자기 무릎이 비틀리며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조직이 약해져 특별히 다친 기억 없이 파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골판 파열이 의심되면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연골판의 어느 부위가 어떤 모양으로 찢어졌는지, 인대 같은 주변 조직이 함께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파열이 보인다고 해서 무릎 통증이 모두 그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은 중장년층도 검사를 해 보면 연골판 파열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관절염이나 주변 힘줄의 염증처럼 다른 곳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 무릎이 얼마나 굽혀지고 펴지는지, 흔들리거나 빠지는 느낌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이러한 신체 진찰과 영상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계획을 세울 때도 나이나 MRI 결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파열의 형태와 조직 상태, 관절연골이 닳은 정도와 함께 평소 활동량,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일상까지 살펴 환자분께 맞는 계획을 세웁니다. 같은 연골판 파열이라도 무릎의 상태와 바라는 생활이 다르면 알맞은 치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 파열에서는 무릎이 무언가에 걸린 듯 끝까지 펴지지 않는 증상 같은 조기에 수술을 고려할 소견이 없다면 우선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로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무릎 주변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을 함께 시행합니다. 무릎을 꿇거나 깊이 쪼그려 앉는

무릎 쿠션 역할의 반월상 연골판 손상

수술 필요 시 연골판 최대한 보존 치료

손상 회복 너머 환자의 삶 최우선 목표

자세, 양반다리 등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당에서 오래 꿇어앉거나 절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무릎에 부담이 덜한 자세로 생활 습관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치료가 찢어진 조직을 원래대로 붙여주지는 못하지만, 통증과 부기를 줄여 일상을 편안하게 이어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찢어진 부위를 봉합해 연골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최대한 연골판을 보존하려는 것은 연골판이 줄어들수록 관절연골이 받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골판은 부위마다 혈액 공급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파열이 봉합 후 잘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열의 위치와 모양뿐 아니라 조직이 얼마나 건강하게 남아 있는지, 봉합했을 때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일부 조직이 심하게 헤져 봉합으로 회복시키기 어렵고, 불안정하게 움직이며 증상을 일으킨다면 필요한 범위의 부분절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제거 범위는 줄이고, 보존할 수 있는 조직은 최대한 남깁니다. 이분법적으로 절제 혹은 봉합을 나누기보다는 봉합 후 잘 아물기 위해 경우에 따라 회복이 어려운 일부만 정리하고,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파열 부위는 봉합합니다. 무엇보다 각 부위의 상태에 맞게 치료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골판을 최대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일상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상태를 잘 관리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봉합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 연골판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그 판단에는 MRI 속 모습뿐 아니라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과 무릎 전체의 상태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결국 연골판 치료가 바라보는 곳은 MRI에서 보이는 손상만이 아니라, 그 무릎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환자분들입니다. 다시 편하게 걷고, 하고 싶은 활동을 오래 이어가시도록 돕는 데 치료의 목표가 있습니다. 진단명 하나에 마음 졸이시기보다, 내 무릎에 맞는 치료를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정희윤
거인병원 관절센터 과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0622-중-155142호

세워라 척추! 걸어라 관절! 거인처럼!!



거인병원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⑲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다면?



2026년 수레꾼 중학교 졸업생들. 가난 때문에 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썸라옹에 기숙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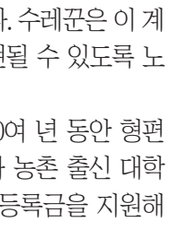
올여름, 수레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예학교 봉제반에 들어온 어린 여학생 '로떠나'에게 고등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입니다. 지난해부터 봉제실을 기웃거리던 아이였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은 모습을 보니 반가웠지만, 그 대답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또 다른 신입생인 '위치까'에게도 물었습니다. "저는 두 달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어머니께서 학교에 보낼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졸업생 가운데 얼마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지 물었습니다. 약 40%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중학교까지 마친 아이들 열 명 가운데 고등학교로 향하는 아이는 네 명 남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는 마을에서 18km 떨어진 썸라옹(Samraong)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곳에 학생들은 보통 대여섯 명씩, 많게는 열 명이 방 하나를 얻어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살림이 어려운 가정에는 방세와 식비도 감당하기 벅찬 돈입니다. 수레꾼은 또다시 중학교 졸업장이 다음 배움의 출발점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 학력으로 남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2008년 처음 뽀디봉에 초등학교를 세울 때의 바람은 소박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생기자 중학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세웠고, 이후에는 손으로 기술을 익혀 살아갈 길을 마련하고자 공예학교를 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수레꾼의 재정형편으로는 이곳에 고등학교를 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썸라옹에 집을 빌려 기숙사를 마련하면 어떨까?'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아이들이 함께 머물며 공부할 거처를 마련해 줘서 방세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레꾼은 이 계획을 2027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레꾼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캄보디아 농촌 출신 대학생들에게 4년간의 등록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장학생들과 함께 해마다 뽀디봉을 찾아 교육 봉사도 해왔습니다. 이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중학교와 대학 사이에서 끊어진 진학의 길을 이렇게라도 잇고자 합니다. 공부를 계속하려는 학생에게는 고등학교에 다닐 여건을 마련해 주고,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에게는 공예학교에서 충분히 배우고 익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가난 때문에 떠밀린 선택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다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겠습니다. 썸라옹에 마련하려는 기숙사가 그다음 계단으로 오르는 확실하고 단단한 주춧돌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계단을 오르면 다음 계단을 놓는 일, 수레꾼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⑩ '다붓다붓'이 꽃피우는 인연의 불심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자 스승입니다

'여럿이 가깝게 다가앉아 있는 모양'을 뜻하는 우리말 이름처럼, 동국대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기(緣起)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는 상의상존(相依相存)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붓다붓은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고자 다양한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아지경 스터디법회'는 함께 정진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뒤 각자의 공부에 집중합니다. 공부가 끝나면 자신만의 학습 방법과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지혜를 서로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허물과 장점을 비추는 거울이자 스승이 되어주는 도반의 소중함과 정진의 힘을 체득해 갑니다.

저는 동국대 경영대학 학생들이 불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과 사회, 나아가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윤리적 성찰이 부재한 성공은 오너 리스크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 쉽기에, 자신의 재능을 수많은 인연을 향한 정성 어린 공양으로 승화시킬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현될 것입니다.

이에 다붓다붓은 학생들에게 먼저 불자가 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실천의 중심에는 계·정·혜(戒定慧) 삼학이 있습니다. 다붓다붓은 매 학기 열리는 '계(戒)좋아 법회'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괴로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계율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경영클래스'에서는 명상 수행을 통해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갑니다. 아울러 템플스테이와 남산 걷기 법회, 연합 법회, 현직 불자 경영인 초청 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지혜와 자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도반과 의지하며 귀한 인연 배우는 공동체
계율 의미 전하고 명상 수행, 템플스테이도
불교 바탕 지혜·자비로운 리더로 성장하길

부처님의 지혜를 삶의 바탕으로 삼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게 하고, 그 지혜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회향과 보은행(報恩行)을 돕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전법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선순환이야말로 무소유의 정신을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다붓다붓의 학생들은 인연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많은 분의 헌신적인 후원과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묵묵히 정진하며, 끝없이 배우고 나누겠습니다. 다붓다붓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벗어나, '나와 연결된 이 세상을 위해 나는 무엇을 베풀고 공양할 수 있는가'를 성찰하는 인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훗날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서 유능한 경영인으로, 또한 행복한 한 사람으로서 밤하늘의 별처럼 저마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무진 스님
동국대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지도법사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㊲ 장엄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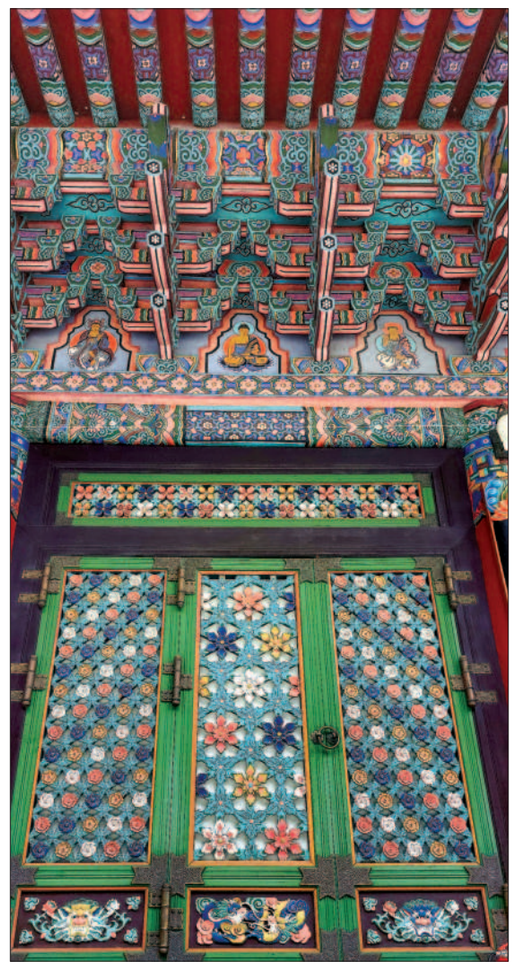
단양에서 구인사로 가는 595번 지방도의 '보발재'는 단풍철의 핫플레이스다. 이 즈음(10월 말~11월 초)이 절정이다. 소백산 북서쪽 기슭에 S자 모양으로 겹겹이 이어지는 도로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이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한다.

보발재가 단풍 명소로 유명해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7년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진 공모전에 보발재 전경이 대상을 받으면서부터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드라이브 코스로도 이름난 이 길을 실제로 가 보면 사진으로 본 풍경은 만날 수 없다. 대상을 받은 그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된 것이다. 하지만 크게 실망하게 되지는 않는다.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뇌리에 저장된 이미지와 겹침으로써 감흥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보발재에서 구인사까지는 자동차로 10여 분 거리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이기도 한 구인사는 단일 사찰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다. 깊은 골짜기 속에 다층의 전각들이 또 하나의 골짜기를 이룬 모습은 한국 전통의 산사와는 사뭇 다르다. 맨 위 대조사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각이 전통 양식을 콘크리트 구조로 번안한 건물이다.

구인사의 금당이기도 한 설법보전 역시 압도적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이다. 하지만 친근하게 느껴진다. 목조 기와 건물 양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공포의 단청과 꽃살문은 콘크리트의 이질감을 너끈히 날려 보낸다. 조선 후기 불교 건축이 정련해 온 장엄의 힘이다.

손영자 작가



구인사 대설법전.



세상의 분열에 나는 무엇을 보태나

현불논단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려 며칠 동안 떠올릴 때가 있다.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거나 그의 말과 행동이 모두 나쁘게 보인다.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화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상대에게 상처나 망신을 주고,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공격성은 때리거나 소리치는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가운 말로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흉을 보고 따돌리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마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신이 부끄러울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은 살피지 않은 채, 상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설명하는 데 힘을 쏟기도 한다. 내가 공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공격받을 만하다고 여기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우면서도 화가 날 수 있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두 마음의 공존을 견디기 어려우면 상대를 완전히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으로 나눠서 보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분열'이라고 한다.

어제까지 좋은 사람이던 동료가 내 의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가 왜 반대했는지 듣기보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단정한다. 내 안의 적대감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적대감만 선명해진다. 날카롭게

마음속 적대감이 관계 분열로 이어져
여지 두는 지적이 대화와 변화 이끌어
내면의 분열 살피고 문제 말할 통로 뚫

말하면 상대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칠게 대응한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마음속에서 시작된 분열이 실제 관계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상대가 실제로 잘못했을 수도 있다. 다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는 것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남겨둬야 대화와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마음은 공동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나와 같은 편이면 잘못도 감싸고, 다른 편이면 옳은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생각의 차이였던 문제가 어느 순간 '누가 우리 편인가'의 문제가 된다. 우리 편의 잘못을 말하는 것조차 배신으로 여겨지면 공동체는 스스로를 돌아볼 힘을 잃는다.

이 관점에서 정치 갈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당을 향한 공격뿐 아니라 같은 당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 정책의 내용보다 누구를 따르는지가 중요해지면, 토론은 밀려나고 서로를 몰아내려는 싸움이 앞선다. 정치적 갈등에는 권력과 이익, 제도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공격성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와 상대를 나쁜 존재로만 보는 관점은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그 영향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아야 할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다.

개인 노력만으로 모든 갈등이 풀리지는 않는다. 사찰과 학교, 직장에서도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말할 통로가 필요하다. 힘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위협과 폭력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비는 내 안의 공격성을 알아차리고, 상대의 잘못에도 분명한 한계를 세우되, 그 사람 전체를 미움 속에 가두지 않는 일이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의 분열부터 살펴야 한다.

몸의 쓰임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로 트레킹을 다녀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동네 뒷산도 다니지 않던 내가 걸어 다니는 건 자신 있다며 마음의 준비도 대충하고 훌쩍 떠났다. 숱한 사람들이 다녀오는 걸 여러 매체로 봐온 터였고, 끈기와 깡 하나는 남 못지않았기 때문이었다. 출발 전날까지 밤새 원고를 쓰는 강행군으로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으면서 비행기를 탔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고서는 매일 산길을 걸었다. 너무 지쳐서 어느 롯지에서는 댓돌 위에서 나뒹굴기까지 했다. 일행들에게 힘든 기색을 보이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밤새 침낭 속에서 끙끙 앓다 마침내 ABC 바로 아래에 자리한 해발 3700m 높이의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해발 4130m의 ABC까지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설렘과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몹시 뛰었고 사지에 힘이 빠져나갔다. 함께 걷는 셰르파에게 말하면 약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오후로 접어드니 날도 추워지고 바람도 거세졌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죽을 것만 같았다.

다라니를 외는 심정으로 내 몸에 주문을 걸었

안나푸르나 트레킹서 극심한 고통 겪어
몸 한계 깨닫고 몸 중요성 느낀 계기 돼
극단 피하고 몸과 조화로운 완성 이뤄야

다. '나는 시체다, 나는 시체다….' 그 어떤 의욕도 마음도 내지 않고 시체처럼 걷자며 몸을 달래고 비위를 맞추며 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해서 도착할 수 있었다.

몸이 이렇게 힘이 센 것이었는지 그때 알았다. 마음은 살살 달랠 수 있지만 몸은 정직하다 못해 고지식해서 자신의 한계에 이르면 작동하지 않는다. 이날의 체험은 붓다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내 생각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다. 흔히들 불교를 가리켜 마음의 종교라고 한다. 하지만 불교는 몸의 종교이기도 했다. 마음을 제대로 잘 쓰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과 친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은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금 가거나 깨지면 말짱 헛일이다. 마음은 무한할지 몰라도 몸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 제한 안에서 구도자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자니 무한정으로 몸을 괴롭히고 극단으로 내모는 그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고, 살아서 내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종종 마라톤이나 등산 등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이들의 소식을 뉴스 등을 통해 접하곤 한다. 이들의 불상사를 마주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 20년 전 해발 4130m를 400m 앞두고 나를 덮쳤던 육체의 파열음이 들렸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몸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다. 이것이 몸의 쓰임이다. 몸을 이기는 운동이 아닌 몸과 친해지는 운동으로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운동하는 동안도 즐겁고 운동을 마친 뒤에는 더 힘차게 일상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社 說

자비, 모든 생명을 향하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일상을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 이러한 때 불교계가 반려동물 선명상과 동반 템플스테이, 천도재 등을 통해 생명 존중의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강릉 현덕사는 1999년 창건 당시부터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야생동물,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희생된 실험동물 등으로 추모의 범위를 넓혀 왔다. 인간의 편리 뒤에 가려진 생명의 희생을 성찰하고 참회와 보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오대산 월정사는 지난해부터 수륙무차대법회에 반려동물 천도단을 마련하고 있다. 전통적인 천도의례가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의 죽음까지 보듬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이다.

반려동물 선명상 · 캠핑 · 천도재 등 확산
생명 존중 사상으로 뭇 생명 보듬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수행과 문화 행사도 눈길을 끈다. 봉선사는 올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반려견의 속도에 맞춰 걸으며 호흡과 감정을 살폈으며, 도그요가와 수의사 강연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쌍계사도 11월 6~8일 개최하는 산사캠프에 반려견 동반 참가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찰의 수행문화와 캠핑을 결합해 자연 속에서 함께 쉬고 교감하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변화는 불교가 오늘날 사람들의 삶과 고통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보여준다. 불교의 자비는 고통받는 존재를 가리지 않는다. 생명 존중의 대상을 인간에서 동식물로 넓히는 일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불교가 본래 지향해 온 자비와 생명 평등의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과정이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불교적 관점에서 보듬는 일도 중요하다.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겪는 '펫로스 증후군'은 가족을 잃은 것과 다름없는 상실감을 안기지만, 그 슬픔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교의 무상과 연기, 자비의 가르침은 이별의 고통을 억누르거나 서둘러 떨쳐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함께한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생명의 이치를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관련 명상과 안내가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불교는 반려인들의 애도와 마음 치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생명 존중의 관심이 반려동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아끼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실험동물의 고통을 외면하며 개발과 소비를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모순을 돌아봐야 한다. 유기와 학대, 무분별한 번식과 충동적인 입양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까운 생명만 아끼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는 다른 생명을 외면한다면 자비의 실천은 온전할 수 없다. 사찰의 생명 존중 활동이 동물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 생명윤리 교육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해 살아간다는 연기의 진리를 삶으로 실천할 때, 불교의 자비는 인간과 동식물, 자연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여는 힘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0월 2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0월 2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0월 2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륜정사
• 주 지 : 덕현 (속명: 성순자)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565-107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2026 영캠

"동행(同行), 함께 길을 열다"

좋은공원

YOUNG CAMP

일 시

2026. 11. 17 화

[15:00 ~ 18:30]

장 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문무관(체육관)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와이즈캠퍼스 WISE CAMPUS